朝鮮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朝鮮의 産業組合

産業組合의 起源은 이미 英國의 「로치데일」 開拓者의 손으로 비롯하야 英國에서 百餘年間 發展해온 긴 歷史를 가진 것은 一般이 周知하는 바이나 獨逸에서도 相當히 發展하야 그 信用組合 或은 庶民銀行에 일으러서는 世界의 模範을 지을만치 組織의 發達함을 볼수 잇다 그리하야 歐美에는 일즉이 그 組合組織이 普及되어 잇섯스나 日本에 들어와서는 一九○○年에 이 制度가 實施되어 왓고 朝鮮에 잇서서는 이미 金融組合의 制度가 獨逸의 庶民銀行을 본바더 實施된지가 二十個年에 達하엿스나 그 外의 産業組合은 겨우 昨年 三月 一日 産業組合令의 發布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

近世資本主義經濟의 發達은 漸漸 資本의 集中蓄積을 速하게 하며 딸아서 生産의 規模는 巨大함을 要하게 되는 그럼으로 從來의 零碎한 資本으로 經營을 維持하여 오든 小쁘르조아 中間層은 그 根據가 恒常 動搖됨을 免치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地位를 擁護하라는 努力은 組合運動으로 現出되어 올 뿐 아니라 一方 資本家的 支配階級側에서도 近代 無産階級의 激烈한 抗爭을 緩和시키는 한 方策으로 이 組合運動을 奬勵하야서 中間層의 防衛地帶를 設置하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제 朝鮮에도 産業組合令이 實施되어 組合의 奬勵를 圖謀하고 잇다 그러나 産業組合令의 內容은 實施地域이 朝鮮인 만치 다른 나라에 比하야 그 形態가 슬그러지고 잇다 金融組合도 産業組合의 一部分인 以上 金融組合은 當然히 産業組合속에 包含시키어야 할 것을 各 併立시키어 形式上 또는 運用上 重大한 錯誤가 잇슬 뿐 아니라 組合은 總督의 許可로 設立되며 組合長 及 理事의 選任은 道知事의 認可를 밧어야 한다 그러고 官廳의 干涉과 監督은 넘어 일만치 組合의 圓滑한 運用을 擊肘하고 잇다 이 엇지 所謂 組合의 精神이라는 協助的 相助主義에나마 마질수 잇스랴

×

우리는 昨紙에서 鷄岩産業組合의 動搖되는 事實을 보게 되엇다 그 組合은 從來 郡廳의 指導알에 組合令에 依하야 經營되어 왓다 그러나 原料의 配付 製品의 販賣上 모든 行動이 不自由함을 늣기게 되어 組合員 一百二十餘名이 代表를 選出하야 道當局에 陳情하며 또는 組合에 對하야 四個條의 要求事項을 提出까지 하엿다 고한다 그러나 組合當局者는 그 代表들을 背任罪로 告訴까지 하엿스며 百餘名의 組合員들은 또한 그 代表를 擁護하야 이에 諸抗하야 事態는 漸漸 重大化하여 간다고 한다 우리는 産業組合이나 金融組合을 물론하고 官局의 干涉監督이 太甚함을 늣기지마는 組合內部에 잇서서도 亦是 官僚式을 模倣하야 繁瑣한 形式에 拘束되어 잇스며 또는 營利的 色彩가 濃厚하야 組合의 根本精神에 背馳됨을 늣기게 된다 그러한 結果는 組合으로 하야금 農村의 한 搾取機關에 써지게 하고 마는 念慮도 적지 안타 이러한 現狀은 朝鮮이 아니고는 容易히 發見할 수 업는 特殊한 現象이다 朝鮮에 잇서서는 모든 事情의 形態가 엇지하야 이러케 뒤두루되어 나오는지 우리는 이 點을 깁히 생각지 아니할 수 업다

武南兩政府解散 國民政府新組織

準備委員會九日에 開催

(上海九日發) 武漢南京兩政府는 解散의 形式을 取하고 새로히 國民政府를 組織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는데 九日午後一時부터 大會準備委員會를 開催하엿더라

南京秩序回復 滬寧鐵道開通

(東京電) 某處着電에 依하면 今回의 動亂으로 南京으로부터 浦口에 避難하여온 住民은 五日부터 民船으로 南京에 歸還하는 者가 增加하고 北軍은 이미 明光外지 退却하엿다 또 領事館「힐크」와 下關의 民船의 連絡이 開始되어 近日中 陸上과의 交通도 될터이며 過般來 運轉中止가 되어 잇던 滬寧鐵道는 七日부터 全部開通되고 上海南京間은 一日一回 客車를 運轉하기로 되엇더라

合作團結主張 李濟琛氏宣言發表

(上海八日發) 武漢南京의 合作問題에 關하야 廣東의 李濟琛氏는 오래동안 沈默을 守하고 잇섯더니 七日에 如左한 宣言을 發表하엿다더라

一、內外의 同志는 全部 一致하야 共同으로 할것을 希望함
二、蔣介石은 卽時 復職하고 汪兆銘도 特히 南京에 赴할 것을 主張함
三、總司令의 職은 暫時 保留하고 統一의 完成을 期待하야 이것을 廢할 것을 主張함
四、武漢同志도 蔣介石을 此際에 가장 優勝한 軍事領袖로 認定할 것을 主張함
五、第四次執行監察委員會를 召集 武漢南京兩派에 對하야 兩政府는 모다 合法的 組織인 것을 否認하야 그 禍根을 除去하고 兩派는 모다 解散한 後 다시 合作團結로 改定할 것을 主張함

汕頭危險 廣東援軍急派

(香港九日發) 賀龍、葉挺兩氏의 共産軍은 國民軍과 合體하야 共勢가 猖獗하야 汕頭가 危險에 陷하얏슴으로 廣東政府는 援軍 五千을 急派하얏는바 在留日本人은 馬公으로부터 急派된 驅逐艦의 保護下에 잇다더라

蔣介石夫人 桑港에 到着

(桑港九日發)「푸레시덴트윌손」號로 蔣介石夫人이 到着하얏는데 夫人은 語하기를 中國은 지금 米國이 會往 經驗한 바와 가튼 革命途上의 苦惱를 맛보고 잇다 中國의 問題는 中國自身이 解決할터입으로 世界는 暫時 참고 進行을 傍觀하여 주기를 바란다

閻錫山氏는 徹底한 山西主義 無偏無黨한 中立態度

(北京九日發) 山西代表 李慶芳은 一昨日 歸京하야 奉天派와 折衝을 開始하엿는바 態度는 極히 消極的이어서 奉天派와 馮玉祥 討伐의 協同出兵은 全혀 希望이 업슴은 明白하다 한데 李慶芳의 談에 依하면 閻錫山氏는 極力으로 馮玉祥과의 接近을 避하는 中이오 奉天派와도 不卽不離의 關係를 持續하나 石家莊方面의 撤兵을 無條件으로 承諾할 수 업다고 稱하며 또 張宗昌氏도 頻頻히 代表를 派遣하야 諒解에 努力中이나 閻氏는 依然히 山西「모로」主義에 徹底한 方針임을 表示하엿더라

上海印工罷業 待遇改善의 八條要求

(上海九日發) 內外棉、同興紡의 罷業은 아직 解決되지 안햇는데 今番 印刷工場에게까지 飛火하야 日本人經營인 印刷工場 六社의 職工 三百名은 一週間前 上海工會統一委員會의 名으로서 待遇改善等의 八個條의 要求를 하엿던바 日本人印刷協會에서는 彼等의 要求가 過大한 外닭에 承認치 안햇는데 昨八日午前에 職工에게 罷業을 命하고 不肯하는 者는 違反者라고 射殺하겟다고 脅迫한 外닭에 今朝는 各工場 共히 一名의 職工도 出席치 안코 上海日日新聞 印刷職工도 罷業을 하엿는바 아직 各方面으로 擴大되는 模樣이더라

吳佩孚推戴計劃

四川統一後武漢에 進出

(重慶九日發) 四川의 將領은 白帝城에 잇는 吳佩孚氏에게 代表를 보내어 吳氏를 推戴하라는 運動을 開始하얏는데 右計劃의 內容은

一、劉湘、賴心輝、劉文輝를 討伐하야 四川을 統一할 것
二、吳氏를 討賊進軍總司令에 推戴할 것
三、四川統一後에는 武漢에 出하야 舊吳佩孚의 部下를 集合할 것

別報=吳佩孚는 目下、夔州에 잇는데 아즉도 千餘人의 衛隊가 追隨하고 親信人으로는 張方嚴、蔣雁行 等이 잇스며 一切費用은 楊森氏로부터 供給하는데 四川將領中에서 楊森一人以外에 擁吳、反吳의 兩派가 잇슴으로 吳氏의 將來는 預斷키 難하고 楊森은 確實히 擁護함으로 楊氏가 武漢을 攻略하다가 兩次 失敗한 後에 實力이 薄弱한 것을 不拘하고 吳氏가 入川하는 때로 部下를 派遣하야 盡力保護하며 自身이 夔州에 가서 一次 面會한 일도 잇스며 劉存厚、鄧錫侯의 諸將領이 各 一萬圓을 贈與하고 時時로 慰問이 끈임업는데 劉湘一派가 不滿을 가지어서 吳氏가 入川할 際에 重慶에 拒吳大會를 열고 楊氏에게 同意를 求하엿스나 楊氏는 歷史的 關係가 깁흔 外닭에 贊成치 안흠을 말미암아 劉、楊兩間에 誤解가 생긴것인바 馮玉祥、唐生智의 妥協이 成立된 後에 唐軍大部隊가 安徽에 偏往되어 武漢이 空虛한 것을 機會삼아 武漢을 直擣하라는 것이라 하나 그와 가튼 川中將領의 反對로 不安을 늣기인 結果 湖北으로 나와서 漢水를 거실너 陝西의 南部로 轉入하라는 것인듯하다더라

◇柏文蔚氏渴款 (東京電) 重慶發電에 依하면 四川의 將軍等은 吳佩孚推戴運動을 이르키는바 柏文蔚氏는 吳佩孚氏에게 代表를 派하야 時局의 變化를 기다려 旗를 擧하기로 計劃을 進行中이더라

世界一週機香港着

(香港九日發)「색록크、시콕크」兩氏 搭乘의 世界一週機「드색센」로부터 九日午後三時 香港에 到着하엿다 또 同機는 十日上海

海龍縣에 大馬賊團襲來 日領分館閉止

(東京電) 某側着情報에 依하면 奉天省內 海龍에 數日前부터 數十名의 馬賊이 出現하야 民家를 襲擊하고 中國人 數名을 拉去하엿는데 七日午後부터 又復 六百餘名의 馬賊이 襲來한다는 風說이 傳하야 人心은 洶洶함으로 各戶는 門을 閉하는바 日本領事館分館도 閉門하고 嚴戒中이더라

十一日에 排日運動又擧行?

兵工火藥兩廠職工三萬參加 果然이면 日中事態危急

(奉天發) 中國側의 排日은 益益 露骨化하야 來十一日에도 外交後援會主催下에서 示威運動을 하기로 되엇는데 市民은 勿論 學生及兵工廠火藥廠의 職工 三萬이 參加하리라고 傳하는바 萬若 兵工廠의 職工이 參加하면 日中의 事態는 危急을 告할 이라고 關하더라

滿蒙問題 徹底解決 吉田領事請訓令

(奉天八日發) 奉天에서 未曾有의 大排日運動이 勃發함에 對하야 吉田總領事는 此際에 徹底的으로 滿蒙問題를 解決치 안흐면 二十年의 日本特殊地域의 前途는 엇더케 될지 알수업스며 今後對策에 對하야 本省에 訓電을 仰하얏더라

吉田領事更迭

(東京電) 吉田奉天總領事와 莫省長과의 關係는 오래동안 感情的이 조치 못하얏는데 排日問題로 식그러운 此際에 中國側에서는 政治的 意味의 策略的 態度가 잇슴으로 東京政府當局에서는 此間의 事情을 參酌하고 吉田氏의 進退에 對하야 相當히 考慮하는 中이더라

日學生을 侮辱

(奉天九日發) 先般 排日示威運動以來 城內中國人의 日本人에 對한 感情은 極度로 惡化하야 昨今 城內로부터 新市街方面에 通學中인 日本人小中學生徒에 對하야 侮辱을 與하는 者가 激히 多한바 七、八兩日 電車 또는 步行中 惡口投石의 侮辱을 바든 者만 四十二名으로 警官에게 監督을 願하는 中이더라

排日對策으로 日人大會開催

(奉天九日發) 東三省排日運動對策으로서 奉天에 本部를 둔 全滿日本人大會는 昨日 沿線各地委員에 對하야 十日午後七時부터 奉天公會堂에 全滿日本人大會를 開催할 것을 通告하엿던바 各地委員은 續續來奉中인데 大會後 政府를 鞭撻할 一大演說會를 開하기로 決定하엿더라

◇宣傳文散布 (奉天九日發) 本日午後에 日本居留民會、全滿日本人大會聯合委員會에서는 中國人의 迷夢을 覺醒시키기 爲하야 左의 宣傳文 數萬張을 附屬地及城內에 散布하기로 決하엿더라

一、中國官憲의 迷夢을 打破하라
一、軍閥의 虐政은 赤化보다 甚하다
一、奸邪를 捨하고 東三省의 天地를 淸潔케 하라

또 城內로부터 通學兒童에는 各 數名의 警官이 萬一을 慮하야 保護하는바 此에 對하야 中國人中 惡罵하는 者는 昨日까지 四十七件으로 本日도 또 廿九件이 增加되엇더라

◇日警官增派 (奉天發) 來十一日 再次 排日示威運動이 實行될 與否는 目下 알 수 업스나 萬一의 際를 考慮하고 奉天日本警察署는 日本人居留民을 保護하려고 警官의 補援方을 關東廳警務局에 申請한 結果 奉天附近으로부터 百五十名을 派遣하기로 決하고 十日早朝에 着奉할 터이더라

排日取締는 快諾

鐵道問題가 難關 要求의 諸否는 尙未知

(北京九日發) 九日午後一時半부터 約三時間半에 亘하야 芳澤公使는 楊宇霆氏와 激論을 交하얏는데 芳澤公使는 多少 疲勞한 模樣으로 語하기를 本日은 三時間半에 亘하얏는데 最初부터 奉天派의 排日問題에 對하야 切實한 注意를 喚起하고 取締할 것을 要求함에 對하야 楊宇霆氏는 이미 大元帥로부터 至急히 嚴重取締할 것을 電命하엿슴으로 今後는 別事件이 업스리라고 答하얏다、余는 다시 過日과 가튼 事件이 이러나지 안토록 더 取締하여 달라고 要求하얏던바 楊氏는 此를 快諾하엿다 그다음 滿洲에 在한 鐵道問題에 對하야 種種으로 意見을 交換하얏는데 其內容에 對하야는 어느 때던지 말할 수 업다 要컨대 鐵道問題만으로 三時間餘이나 討論한 것이며 中國側의 誠意의 有無와 日本要求의 諸否如何는 지금 處地로는 言明할 수 업다

◇또排日거던 斷然히 處置◇ (北京九日發) 張作霖氏는 東三省의 排日運動에 對하야 楊宇霆氏에게 今後에 如斯한 事件이 再發하면 奉天官憲으로 하야금 斷乎한 手段을 取하게 하라고 嚴命하얏더라

戶外運動嚴禁

(北京九日發) 奉天에서는 十五日 第二回排日示威運動을 計劃 定이나 張作霖氏는 莫省長에 對하야 戶外에서 行할 一切의 排日行動을 嚴禁하라고 命하엿더라

外交後援會解散 張大元帥가 遂電命

(奉天十日發) 昨日 張大元帥로부터 各軍憲部에 對하야「현되히 外交後援會라는 것을 組織하야 民衆運動을 煽動하는 由來 民衆運動은 暴動化하는 것으로 實際 外交上에 對하야 何等의 益이 업슬 뿐 아니라 今後 民衆運動을 取締하는 同時에 速히 外交後援會를 解散하라」고 電命하엿더라

外交研究會 奉天에 新設

(奉天九日發) 奉天의 示威運動은 省長의 命令으로 一時 中止하기로 되엇다 代에 排日 또는 經濟絶交를 斷行을 爲하야 外交研究會가 新設되엇는데 奉天官憲은 此等에 關한 記事의 揭載를 禁하얏더라

◇排日禁止布告 (奉天九日發) 本日 奉天軍留守司令及莫省長은 張大元帥의 命에 依하야 今後 一切 排日運動을 禁할 旨를 布告하엿더라

示威中止면 對日經濟絶交 外交研究會를 新設

(東京電) 某處着電에 依하면 奉天의 示威運動은 省長의 命令으로 中止되엇다 그 代로 排日貨 또는 經濟絶交를 斷行하려고 外交研究會를 新設하엿는데 奉天警察廳長은 此等의 新聞記載를 禁止하얏더라

鐵道敷設意思 中國側이 表明

(北京九日發) 楊宇霆氏는 今日 芳澤公使와 第二次會見中 奉天側은 打通、吉海兩鐵道以外에다 시 軍事上 必要로 天圖線에 連絡할 洮南、廣倫間及洮南、開魯間 各鐵道를 建設할 意思가 잇슴을 表明하엿더라

印度에 又騷擾 死傷百廿餘名 原因未詳

(印度나가품七日發)「나가품」에서 騷擾가 일어나서 死者 二十五名、負傷者 百餘名을 내엇는데 그 原因은 아즉 未詳하다더라

聯盟形勢惡化

弱少民族이 氣焰을 滿吐

(「쥬네바」八日發)「쥬네바」의 形勢는 益益 險惡하게 되어「리스아니아」代表는 一般討議席上에서 聯盟解散의 要를 唱하기까지 하고 波蘭代表는

一、모든 侵略的 戰爭을 禁止할 것
二、國家間에 起한 紛爭은 如何한 處地에던지 一層 平和的 手段으로써 解決할 것

이라는 要求提案의 修正案을 拒絶하고 修正할 것 가트면 全然 脫退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英、獨、佛은 此修正案에 贊意를 表한다 此에 依하야 波蘭首席代表는 今日의 演說外 자 中止한 諸小國은「로카루노」條約締結國인 英、獨、佛等의 大國의 態度에 激昂하야 日伊兩國을 自己便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諸威代表「한뿌레」氏는 聯盟의 主要國이 秘密會合을 行하는 일이 流行한다고 攻擊後 出席各國外相은 自國의 外相으로서 일을 보지 말고 모름직이 聯盟의 一員이 됨을 自覺하라고 痛論하야 滿場의 拍手를 受하얏더라

朝鮮總督의 拓殖大臣兼任論

兩方의 關聯되는 問題

(東京電) 拓殖省設置要項은 七日 行政制度審議會總會에서 可決되고 同官制要項及豫算問題는 今月下旬頃에 開會하야 次回總會에서 決定하기로 되엇는바 拓殖省官制立案上 가장 重要한 問題로 關係當局의 考慮點은

一、拓殖大臣과 朝鮮總督及臺灣總督과의 權限問題를 如何히 解決할가
二、法律에 代할만한 朝鮮總督의 制令權及臺灣總督의 律令權은 拓殖省設置以後에 그 存廢問題를 如何히 할가

等인데 內閣要部의 意向으로는 拓殖官制로서 拓殖大臣은 當然히 朝鮮總督을 兼任할 것을 制度上 大改革은 實行하라는 것이다 卽 拓殖省設置의 主眼은 朝鮮統治의 根本方針을 確立하고 이 行政의 一大刷新을 期하라는 것임으로 現行制度와 가티 官制上에도 亦 實際上으로도 內閣總理大臣의 直接監督을 밧지 안코 大權에 直屬한 一種 獨立의 官廳으로 한 總督을 그대로 拓殖大臣과 對立하는 것은 拓殖省設置의 根本方針에 並行되지 안는 理由로 拓殖大臣은 形式上 上位를 維持할지라도 實質上에 잇서는 兩者에 對立으로 現新關係는 如何히 圓滿을 缺하면 朝鮮統治의 實績을 擧하기 至難한 것이 兼任論의 根本理由이다 그리하야 來廿六日에 歸朝할 齋藤總督의 進退問題에 關한 田中首相의 意見으로는 齋藤總督의 勇退를 內心으로는 希望하나 齋藤總督이 自發的으로 辭任하지 안는 以上 首相이 먼저 同總督의 引退를 左右할 수는 업슴으로 今後 拓殖省設置에 伴하야 前記와 如히 兼任制度가 實現되면 이와 同時에 制度改正으로 齋藤總督이 不得己한 境遇에 至할 것은 明白하다 內閣側이 右와 如한 秘策을 세우고 此兩得의 方法이라 하며 拓殖省官制制定上과 齋藤總督의 引退問題에 關하야 極히 重大視하더라

試驗救濟案과 文部省의 答辯

(東京電) 今回 文部省에서 決定한 試驗地獄救濟案에 關하야 同省은 九日午後 中學校長協會와 懇談會를 文相官邸에서 開하야 水野文相으로부터 制度改正의 趣旨를 述하고 山崎政務次官으로부터 細目에 亘하야 說明後 出席各學校長과 問答을 하엿는바 學校長側은 筆記에 依한 平易한 試驗을 加할 수 잇도록 修正하고 십다고 述하엿스나 文部省側은 希望으로서 드러둘터이나 改正案의 根本趣旨修正에는 反對함으로 修正은 不可能하다고 答辯하고 散會하엿다 當局에서 表示한 主要한 點은 左와 如하더라

一、人物考査에는 正確한 腦力等 習能의 考査를 含함
一、小學校長에 對한 運動과 其他 情弊에 對하야는 當局도 其監督을 嚴重히 할 意嚮이다
一、改正案의 實施期는 來年四月부터 할 模樣이다
一、入學에 對하야는 大體 本案에 依하야 施行할 模樣이나 반다시 絶對的 劃一의 制度를 取할 趣旨는 아니다
一、能力의 如何를 判斷치 못하고 小學校로부터 中學校에 集中하는 現象을 是正하기 爲하야 職業指導及進學指導를 行하야 個性敎育을 奬勵하고 大大的으로 實業敎育을 奬勵할 일

또 十日 師範、高女、實業의 各學校長協會員을 招하야 各各 修正案에 對하야 懇談諒解를 求하기로 되엇더라

小作問題의 經濟學的一考察 (八)

米國위스콘신大學에서 MS 李勳求

佛蘭西의 花卉家들은 他人의 土地를 賃借하야 花卉에 適當한 肥料를 土地에 施用하고 萬一 小作權이 移動되는 境遇에는 土地表面의 三寸假量을 글거가지고 간다는데 이것은 三寸의 地表가 自己들의 勞力으로 花卉生産의 用具로 資本化되어서 自己의 것이라는 觀念에서 나오는 바이다 한 우수운 實例라 보겟다 勿論 오늘날 土地所有의 形式上 發達이 이와 가티 單純한 것은 아니요 여러가지 過程을 지나서 되는 것이다 곳 經濟學上 國家主義派의 巨頭인「프리드리히·리스트」氏가 말한 바와 가티 土地所有形式의 確立은 土地가 共有로 公共利用되며 共有로 私的利用되며 私有로 私的利用되는 三階段의 過程을 지나서 된 것이지만 所有의 根本形式과 槪念이 過去勞働의 資本化에서 胚胎된 것은 가릴 수 업는 事實이다 이와 가티 보아오면 土地의 所有를 是認하며 딸아서 地代의 取得을 正當하다 볼 수 밧게 업다 勿論 他面에 科學的 社會主義者들의 有力한 反對의 學說과 論證은 本論範圍外에 屬함으로 他日의 機會를 俟하거니와 現今 우리 地主들이 果然 過去의 勞働을 積蓄하야 이것을 資本化한 것이냐 할 것 가트면 반다시 그러타고는 할 수 업다 卽 다시 말하면 오늘날 都會地에서 居住하면서 萬石君의 稱號를 듯는 金某 李某 閔某乃至張三李四等 地主階級이 가지와 가티 土地를 所有한 것이 過去의 地位와 權勢를 利用하야 不義의 手段으로 蓄積한 것이라 보겟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小作問題의 傳統的 缺陷을 發見하겟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것을 論評하라고 아니하고 다만 過去勞働의 集積으로 土地가 資本化되어 所有하는 結果를 내이고 또 이 結果가 地代를 내이며 또 이 地代가 또다시 資本化되며 또 이 地代가 資本化되는데 엇더한 形式으로 엇더케 되나를 討究하야 地主의 正當한「차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저 한다 近代 歐米各國의 資本家가 그 資本을 投資할 때에 곳 土地에 資本을 投入하야 地代를 資本化하라 할 때에는 一定한 學理的 制限下에 左記와 가튼 方程式을 利用하나니 이것은 곳 純收入과 普通으로 流行되는 利率과 土地增價額과 및 土地價格間에 存在한 因子를 數學的으로 誘導하야 復利의 計算으로 地價를 決定하며 또 逆으로 地價의 決定으로 純收入을 決定할 수 잇는 것이다 곳

地價 = 純收入/利率 + 土地增價額/(利率)²

$$V = \frac{A}{R} + \frac{I}{R^2}$$

가 그 方程式이다 이 方程式을 誘導하는 데는 數學的 知識이 充分하여야만 알 수 잇스며 또 이곳에서는 紙面뿐 아니라 이 方程式을 誘導하는 理論을 캐는 것이 目的이 아님으로 그만 두거니와 地代가 土地資本에 對한 一種의 收入이요 小作料가 地代인 以上 우리 社會에서 通常 賣買되는 地價와 또 普通으로 貯金으로 나오는 利率과를 比較하야 純收入의 小作料額을 理論的으로 決定할 수 잇나니 이것은 곳 前節에 말한 바 過去의 勞働이 資本化하고 資本이 土地에 投資되어 이에 對한 一定한 收入 곳 地代를 엇는 理論이며 더구나 이 方程式은 今日 歐米에서 普遍的으로 應用하며 是認되는 것임으로 우리 社會에 利用한다 하더라도 理論上 不可할 것이 업슬 뿐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習慣上 地代를 決定하는 方法이 아모 學理的 根據가 업는데 比하야 그 結果의 善惡이 判이 잇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면 實際에 잇서서 이 方程式으로 適用하면 地代가 土地資本額에 對하야 얼마나 되겟는가 이 問題는 利率의 標準을 딸아 多少의 差異가 잇스나 現今 우리 朝鮮內地에서 普通銀行이나 郵便局에 貯金에 對한 利率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 가장 適合하니 곳 이것이 金融界에 流行되는 가장 安全한 利率이라 하겟슴니다

宇垣總督代理歸東

宇垣總督代理는 京義線特急이 延着된 外닭에 豫定보다 늣게 十日午前十時十六分 京城驛發列車로 松村秘書官及途中外지 餞送하는 淺利警務局長、米田知事等을 隨하야 渡東의 途에 就하엿다는데 驛頭에는 湯淺總監以下 各局部長、朴侯爵、韓李王職長官 其他 官民 數百名의 送別이 잇섯더라

人事消息

▲田中武雄氏(警務局事務官) 洋行中이든바 日本經由、七日午後七時着列車로 歸任
▲金南洙氏(朝鮮社會事情研究社員) 社務를 帶하고 慶尙道方面에 出張

八面鋒

○武漢、南京政府는、解散하고 國民政府를 新組織한다고、形式은 何如커나、合同만 잘되면 그만이지
○張作霖은、畢竟、外交後援會를 解散시키며、排日運動을 嚴禁한다고、病주고 藥주는 셈인가、이것도 中國式이 아니면 못될 일
○朝鮮總督이、拓殖大臣을 當然히 兼任할 것이라고、印度總督이 英國의 殖民地大臣을、兼任한 前例가 잇던가
○이말저말할것 잇나、齋藤氏만 飛行機래자는 酬酢이지

登錄商標 萬世 만세

데오래신는신

萬世고무

京城中林洞 萬世고무工業所 (振替京城一○六三二) (電話本局 二九八番)

新設紀念 競馬大會

日時 自九月八日 至九月十一日 四日間

場所 東大院里 (平壤大同門越便)

每回에 趣味잇는 勝馬投票가 잇소

社團法人 平南레쓰俱樂部

日蓄조선소리판 레코-드의 權威

九月新譜

○全國到處各樂器店에서 販賣합니다
○曲目鮮과 趣味잇는 月刊新譜 無代로 進呈

레코-드界의 新記錄 十八枚連續長篇 春香傳 / 李春再逢歌 (一枚) 李東伯 金秋月 申錦紅 共演

流行歌: 명주수건 / 雙玉淚 李蘭史 / 롱속에든새 / 花園의사랑 피아노 바이올린伴奏

宣傳歌謠: 신소래나오 / 별노래 李貞淑 피아노、코-네트伴奏

판소리: 박타령 金昌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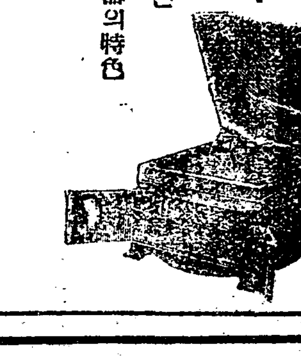
雜歌 西道雜歌: 성주푸리 (才人) 朴春載 / 愁心歌 / 여금愁心歌 張錦花 白牧丹

吹奏樂: 국거리、소국거리 / 긴장단국거리 / 무당국거리 / 二八靑春歌 / 흥打令 / 아리랑타령 / 장긔타령 / 한강수타령 / 자진난봉가 朝鮮樂園

器譜에는 斯界一流名唱의 有名한 曲을 網羅하야 잇습니다

新器械發賣 이-글一號 定價 六拾圓

外形優美… 內容充備… 驚異的 振動板은 本器의 特色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內親王御降誕

十日午前四時四十二分

황후폐하(皇后陛下)께압서는 어임신중(御姙娠中)이압섯는데 혹서(酷暑)에도아모어지장(御支障)이업스섯고어순조(御順調)로어경과(御經過)하시다가십일오전네시사십이분에적판리궁(赤坂離宮)에서 어분만(御分娩)하옵셔 내친왕뎐하(內親王殿下)를 어탄생(御誕生)하옵셧더라

◇十六日御命名儀 내친왕뎐하어강탄하심에대하야 어칠일(御七日)에당하는오는십륙일에어명명어의(御命名御儀)를거행하옵시게되리라더라(동경뎐)

絕影島에暴風

경상남도(慶南)절영도(絕影島)일대에는 지난팔일부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야 구일밤까지도 끈이지 안홈으로 일반은만일을 념려하는중이며 부근바다에도폭풍(暴風)이 계속되어 어선(漁船)의 항행조차드므러젓다고 (목도)

◇昌城에도牛疫 평북에 우역(牛疫)이만연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이어니와 지난칠일 운산군운산면(雲山郡雲山面)에한머리 창성군동창면(昌城郡東倉面)에한머리가 발생하엿다는데 지금까지의두계는칠십팔두라고

大連京城間 郵便飛行機

조、일、만련락우편비행(朝、日、滿連絡郵便飛行)을하는 건(乾)평송(平松)의두비행긔는 십일오전여섯시 이십오분경 대련(大連)을 출발하야 오전열한시에 경성(京城)에도착하엿더라

◇경관의렬성리에다시렬책준비——(경성디방법원에서)

秋夕前夜에血雨가쏘다저

短刀가진强盜二名 追擊巡査를刺殺

초저녁에포목상뎜에나타나서 금품을강청타가순사에게들켜

九日初更仁義洞의慘事

최근에이르러 시내각경찰은 더한층신경(神經)을날카로히 하야엄중한 경계에경계를 거듭함으로 경성시내의 중요한거리에는 낫과밤을불계하고항상 정사복(正私服)경관의그림자가 끈일때가업는 터인데대경성의 한복판이라할만한 인의동(仁義洞)큰길가에는밤도채깁지안허 사람의왕래가끈일새업는데다가 더욱이중추가일(仲秋佳日)을하로남긴밝은달이 휘영청 낫과가티 대디(大地)를밝히는 구일오후아홉시삼십분경에 돌연히정톄(正體)모를 대담부쌍한강도(強盜) 두명이나타나서포목상(布木商)에침입하야금품을강탈하다가 마츰지나가든 순사에게들킨바되어드듸어 뜻을일우지못하고 어둠속으로 자최를감추려하다가 쏘쳐오든 순사와일대격투를 연출하야 마츰내는예리한단도(短刀)로써 순사를란자(亂刺)하야 현장에서즉사케한 류혈(流血)의 참사(慘事)가 돌발하야 그러치안허도엄중한 경계를게을리아니하든 경찰당국은 더한층엄중한경계를거듭하게되는동시에 아연히 대활동을개시하게되엇더라

布木달라다가 瞥眼間凶器

내노흐면서위협하엿다

추석음식만들다가대경 막달은골목에서格鬪

구일오후 아홉시삼십분경에 시내인의동 일백일번디(仁義洞) 문수경(文壽慶)(五二)포목상(布木商)에는 련령이 삼십여세쯤되어보히는 조선옷입은 청년 두명이들어와 태연하게 광목(廣木) 열자(十尺)를 팔라함으로 권귀주인은 아모의심업시 광목을쓰내어 목척(木尺)으로다섯자쎄를 재이든찰나(剎那)에 그들중의한명은 별안간 두루막이속으로부터 기리가 약일척오촌가량의단도(短刀)를내어밀며 『우리는이와가튼 사람이니 소리를지르지말고 가만히잇스라 만일 움직하면 용서업시 죽이겟다』하고 위협을하는일방 달은한명은 쏜살가티 마루 한모퉁이에잇든 돈궤작(錢箱)에손을 대어그것을 가지고도망하랴 할지음에 의외의변을당하고 벌벌썰고만잇든 권귀문수경은 겁결에 쏜살가티자긔집안으로 들어갓든바 마츰안에서 추석(秋夕) 준비를 하든그의안해가 황망이 뛰어들어오는 남편의거동을보고 맛바다나오며『도적이야!』소리를질으자 마츰그부근을 행순하든 종로서정목파출소(鐘路四丁目)순사김룡성(金龍星)(二三)이가이소리를듯고즉시달려오자권귀범인들은 이것을보고번개가티몸을날리어 뒷문으로뛰어나가 연골목인 순라골(巡邏)로자최를감추엇고 권귀순사는 그의뒤를추격하얏든바 자최를감추려고다러나든범인들은그골목엄영화(嚴榮華)라는 사람의집 대문 압층계(層階)에이르러 서는、골목이 막히엇슴으로 진퇴유곡(進退維谷)에빠져서 권혀갈바를 잇고허둥대는것을 추격하든 김룡성순사가달려들어 마치활동 사진장면가튼일대격투를연출하야서로어울어져 격렬히싸우든중 마츰범인들은 몸을돌이키며 가졋든단도로김순사의 외인편 가슴과외인편갈비(肋骨)사이와밋가슴과명문을번가려가며란자하야현장에쓸어져즉사케한후어데로인지자최를감추어버리고말엇다더라

現場에鮮血淋漓

달빗알에에처참한광경

元橋檢事證據品押收

권귀범인에게 단도로써 란자되어현장에혼도한 김순사는 즉시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으로수용하야 마츰치료중이든 식목(植木)의사의 응급수당을 바덧스나 원래출혈(出血)이 만엇슴으로 회생치못하고 동열시삼십분경에 마츰내사망하고 말엇다는데 이급보를접한 경성디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에서는 즉시원교(元橋)검사가 신(申)서긔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 검시하얏는데 현장에는 선혈(鮮血)이 림리(淋漓)하야 밝은달빗알에 비치는피흔적이 보든사람의 소름을 씨치게하야 피비린내가코를찔러 그처참한정경은 이로형언할수가 업섯다는데 현장을검시한 권귀원교검사는 현장에흐터저잇는 유류품(遺留品)인 중절모(中折帽) 맥고모자(麥藁帽子) 두루막이(周衣)를 증거품으로써 압수한후 수색을진행하고 잇다더라

嫌疑者二名引致

종로、동대문두서에서

권귀사건이 발생한이래 시내각서에서는밤에서붓허 나도록맹렬한 활동을계속중인데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시내모처로부터 리모(李某)(二?)를 인치하얏스며 종로서에서는조모(趙某)(二五)를인치하야다가 엄중취조중이라는데 권귀두명은다각기왕한보도한범행에대한 혐의자이라한다

犯人은五里霧中 全市에警戒網

동숭동가는다리알에서 피무든옷發見

이급보를접한 소관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즉시서원을 전부비상소집하야 요처에거미줄가튼 경계선을늘이어 엄중한 경계를개시하는일방 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는리형사과장(李刑事課長) 박(朴)경부이하수명의부원이 동대문서에 출동하야 범인수사를 지휘하는 다른한편 시내각서의 응원을 어더가지고시내에 털끗가튼경계망(警戒網)을늘이어 범인을데포코자 활동을 개시하얏스나 십일오전에이르러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부근인 시내혜화동일백삼십일번디 혜화문(惠化門)에서동숭동(東崇洞)을통하는다리알에에서 범인이 버리고간듯한 선지피가 무든바지와 단도를 발견하얏슬뿐이고 범인의종적은 전혀오리무중에 싸지고말엇다더라

鄉客가튼 사람이다

◇布木商 몹시놀래인 文壽慶談

사건발생즉시로 포목상의 주인 문수경을 방문한즉 문수경은파라케질린 얼골로 압에와가티말하더라 나는무심히 가가에 안젓다가 손님이와서 물건을 팔라하기에무심히 포목을 재이든쇠테 그와가티 칼을빼임으로 놀라서미처 얼굴도바로 보지못하야 인상(人相)도 도뎌히생각할수업습니다 엇잿든그들은시골사람풍채잇는것만은지금도지긔억합니다 그러나 피해액은다행히한푼도 업서 불행중다행입니다……

◇仁義洞慘劇 (上)문수경상뎜과피살순사 (下)격투하다피살당한현장

二百單一의被告로 朝鮮初有의秘密結社

二夜를隔하야開廷이切迫되엇다

만사람이모다궁금히녁이는 傍聽券에對한注意

조선 근세사에 처음되는큰비밀결사(秘密結社)인 일백단일(一百單一)의 조선공산당파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사건의공판도 이케는 이틀밧을격하야 괴일이곧박하야젓는바 데일무엇 보다도 일반이궁금히여기는 방텽권(傍聽券)은 약륙십매가량이라는바 이방텽권은 아츰여섯시건에 배부할터로 재판소에와서 청구하는순서대로 교부하고 만원이된때에는 아모리한사정이 잇드라도더발행치아니하리라하며 방텽권을 가진방텽인들은 법뎡엽헤림시로 만들어 노흔목책(木柵)을거쳐 일일히 신데를 수색하야 차례대로 입정시키리라는바 방텽자의주의사항은왼에와갓더라

傍聽者注意事項

一、傍聽券은每開廷當日午前六時以前에地方法院正門에서交付할

二、傍聽者는午前八時三十分後取締者의指示에依하야構內에入한後入廷할것

三、構及法廷의出入口에서傍聽券을取締者에게提示할것

四、나막신신은자나又는物品을携帶하고入廷치말것

五、法廷內에서는着席退廷等一切取締者의指揮에從할것

六、法官의入廷及退廷의際는直時起立할것

七、在廷中은靜肅을保하야私語雜談不行狀其他法廷의森嚴을害하야審問에妨害되지안토록삼갈것

八、審問中은함부로離席치말것 若不得已離席할時는取締者의許可를受할것

九、法廷內에서撮影을하지말것

十、正午十二時頃부터午後一時頃外지는休憩임으로該時間中은退廷할것

十一、閉廷의際는直時退廷하야構外로出할것

五十餘日걸릴 長期의公判

날자걸리기로도드믈다

이날의법뎡안에 일백단일(一百單一)의피고인과 이십오인의변호인들과 간수경관(看守警官) 합삼십인가량과 밋재판관계자 등변방청석 칭인으로 피고석과 등변방청석만도 일백팔십여명의 인원이들어서게되어 송곳하나 꼬질틈이 업스며 일반방청석도 변향파가러 약륙십명가량의 방청인을들이어 상오법뎡은 사람으로꽉들길지경인데 첫날부터 이틀동안은 피고일동의 주소성명직업 변명등을 심리할터임으로 피고일백단일이모다 출정(出廷)할터이오 그다음부터 사실심리에들어가서는 매일십오인가량식만 출정시킬모양인바 구일에 재판장의변호인들이모혀 협의한결과 순전한 사실심리와증거심리로 재판장이심리할것 이만 이십일로이것을격일(隔日)개정할터이라 재판장의심리만이 사십일간이오 기타변호인의 피고에대하야 심문의피고신청과 증거신청등이만이일가량으로이것도 저일하야개정할터이라는데 간융요하며 그후변호인의 변론이또한만오일가량을걸리게되어 이것도 격일계산하면 일가략으로 전후오십사일 간략한당연이상의 지리한시일이 걸릴리라는바 심리를딸아 혹은그안에심리가 종결될는지도 알수업다는바 공판일이와가티 오래계속하여보기는 지난긔미운동(己未運動)당시에 만세학생공판(萬歲學生公判)이또한격일개정하얏는데 약삼개월을계속한일이 잇서 시일걸리기로는 그것이조선에서효시(嚆矢)이엇는데비밀결사사건으로이와가티공판이오래되기로는금번의공산당사건이처음으로일회심리(一回審理)에이와가티 오래되기는 세계뎍으로 그전례가 드문일이라하며 관결은일러도신원월하순경에나될모양이라더라

東京서올二辯護士

변론림박하야오게될듯

금번에이사건을 변호하기 위하야 멀리동경재야법조계(在野法曹界)의거성(巨星)포시진치(布施辰治)씨와 고하(古賀) 중촌(中村)의 세변호인이 조선에와서변호하기로하얏든이 미두차보도하얏거니와 그중에 포시씨는지으로지정하얏슴때에자긔가마탓든 여러가지 사건의공판을모다 차례로 연긔하야노앗다가 이번에는 여러가지를 또연긔할수가 업슴은물론더러 오십여일간을 와서 잇슬수업서 변호함에 필요한조건은 경성에서 리인(李仁)씨가 모다적어보내고 포시씨는 변론을할때에림시하야오게되엇스며 기타고하중촌량씨도아마그림시하야오게되리라더라

審理結果로 無罪六十名?

변호를압헤노코서

◇……辯護마튼 李仁氏談

이번사건을 마튼 변호이십오인 중의 한사람인 변호사 리인(李仁)씨는압에와가티말하더라 이번사건은 시일이 오래걸리고 범녕이복잡한관계와 기타여러가지로오전아홉시정각에 시작하야 오후 네시정각이면 엇더한사정이잇든지폐정하게될모양입니다 그런데이번사건이 비밀결사로는 조선에서 처음되는 큰사건이나 우리변호인의생각으로공판후에무죄될사람이 약륙십명가량은 될줄압니다 포시변호사는이번에 처음부터오지못하는것을대단히유감으로역이어만사를케커노코오겟다는 것을미리부터오지안트라도 변론은다 할것이며온대야 밧분사람이 두달이나 오래잇슬수 업슴으로림시하야 내가긔별한후 오기로하얏습니다 피고인들의건강(健康)은 모다별이상이 업는터인데 그중에김경재(金璟載)와리봉수(李鳳洙)김재봉(金在鳳)등의세사람이 병상(病床)에잇스나공판에출정치못할디경의중태는아니니 외안심할수잇습니다

唯獨白光欽 辯護謝絕

바들필요가업다고 변호를

피고들중에 일백인은 모다변호사의변호를 승락하얏는데 유독(唯獨)백광흠(白光欽)한사람은 변호를 바들필요가 업다고사절(謝絕)한다더라

檢擧된모히密賣 被害額十九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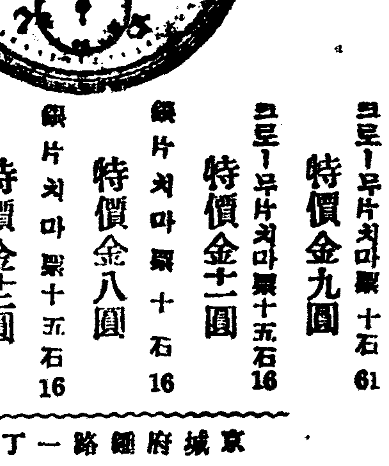
범인잡은것이열일곱명이나되다

大正賣藥會社假面쓰고

수일전에 종로서에 일망타진된 대규모의모루히네밀매단은그동안 사건에대한 취조를일단락지엇고 십일오전에 일건서류와함께 경성디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에 송치되엇다는데 그자들은 ▲京城府吉野町一丁目一〇四 光田幸作(二九) ▲本町三丁目廿五松尾庚平(三〇) ▲玉川洞六七의三栗禹善(三二) ▲竹添町二丁目一二五 鄭斗鉉(三九) ▲吉野町二丁目一〇四光田우메(三二) ▲笠井町一二三加藤시쓰子(二六) ▲本町三丁目中田스미(三〇) ▲京畿道龍江郡阿峴里四七三大正賣藥會社朝鮮支店支配人堀內卓三(三四) ▲同書記宮原賢雄(三七) ▲同主事松尾米作(三四) ▲同技師長 湯淺龍男(四五) ▲松月洞五四의一李和榮(三四) ▲本町三丁目廿五冲田一市(三九) ▲南山町三丁目一三[illegible]口誠亮(四〇) ▲住所不定林仁作(四八)(未捕) ▲中國山海關出生李文權(未捕) ▲住所不明月川宗次郎(四五)(未逮捕) ▲橫山銀次郎(四八)(未逮捕) ▲大阪市北區宗是町一六藥種商野口松治(三七) ▲荒川義幹(四五)(未逮捕) 의열일곱명으로 그들의 죄상은 권귀대정매약주식회사(大正賣藥株式會社) 가경영곤난에싸저파산할 지경에 이르럿슴으로그것을구조하려면권귀회사의소유인아편(阿片)흡연고모루히네로개조(改造)하야 파는것이 케일량책이라하야 지난삼월이래에대규모의 모루히네밀매를개시한것으로 그금액은 십구만륙천팔백칠원팔십전에달한다더라

最高優良品新着

瑞西國製新型



品高價廉堅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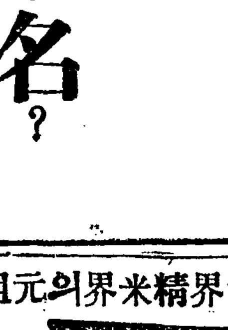
크로-무片치마-짜 十石 61 特價金九圓
크로-무片치마-짜 十五石 16 特價金十二圓
銀片치마-짜 十石 16 特價金八圓
銀片치마-짜 十五石 16 特價金十三圓
닉게-루片치마-짜 十石 16 特價金七圓
닉게-루片치마-짜 十五石 16 特價金十圓

京城府鍾路一丁目七一
信鍾堂時計舖
電光八九六番 振替京城一一八九二番

地理正經
浮陰淨陽九宮八卦와九變說을原石張先生이알기쉽게해석하여발행하오니청구해보시압
發行所京城府茶屋町三四番地
林震 謹告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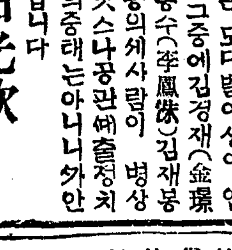
朝日洋服店急告
弊店은開業以來仁寺洞에서 僉位紳士의愛顧하심을多蒙하와今般弊店을左記場所로一層더擴張하옵고諸般裁縫은더욱精密하게할뿐더러價格도大廉價로提供하겟사오니一次試用하시심을伏望
京城府鍾路二丁目十一番地(青年會館下隣二層屋)
朝日洋服店
電話光化門一八三九番

世界精米界의元祖



米國製最新式엥게루바루구精米機

動力界의光明 가도다石油發動機



◉特約店募集 ◉說明書無料進呈
會我商店京城支店
京城太平通二丁目五八番地 電話本局二一六八番 振替京城八九七番

佐藤商店

商品目錄及定價表請求無代進呈
理髮器具 和洋金物 大工道具 捕獸機械
京城府鍾路一丁目二十一番地
㊂**佐藤商店**
振替京城六〇三八番
地方代金引換迅速酬應합니다
佐藤商店은共存共榮을主旨로하고信用을生命으로目的하오며諸位의福利와便利를提供키爲하야理髮器具附屬品全部十二種을合하야元價로廉賣하압니다 他商店에物品과比較하야보시옵소서
一組內容 一組價格 特品四圓 上品三圓五十錢 普品三圓

營業科目
投藥瓶 藥局裝製瓶各種 洋金魚鉢類各種 기우子一切 其他硝子一般
◉硝子器의注文은品質本位로하는◉
京城府黃金町七丁目五番地
金剛硝子工場
主任 朴恒信 主務 姜大現
電話本局一三三四番

眼이점게되는 視力素
老衰眼近視弱視力減退
人의눈이면漸漸眼이컴머지는異常한良藥(說明書申込次第進呈)
◇東京小石川表町五六鶴岡藥品部

天一靈神丸
效力이優秀하고社會의信用을바스는
天一靈神丸은
自古有名한舊式丸藥으로諸般滯症과消化不良症과腹痛、口逆되는데即效하오니
一時救急之藥은家庭에常備가必要하외다
定價 百二十丸入一圓 二十丸入二十錢 十丸入十錢
到處藥房雜貨商에서販賣하오니買用時大商票를注意하시압
趙膏藥本家 京城府銅峴 **天一藥房**
振替京城三〇七七番 電話光七五九番

가뎡부인

음식물개량 (三)
은엇더케할가 부억과찬간의일을줄이자
醫學博士 李□□

그러니까 아츰보다도 점심을 주식(主食)으로하는편이낫습니다그러나 직무상생활까닭에 점심을먹을수업게되는사람이대부분이되니까 점심을주식으로 한다는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까지지내온관습상하는수업슬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녁을주식으로하고 시간을당겨서 다섯시가량에먹게되면조흘것입니다

우리가 씃수잇는힘을 어데면하로에 한번만먹어도 될것입니다 아츰은간단히하고 점심을폐하고 저녁을한번잘먹으면 충분할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맨들기위한 시간과 또는밥을먹기위한시간을 절약할수 잇슬것입니다

그리고 엇던집안에서는 실행하는데도 잇지마는 음식을할때는한가족이 전부모히어서 한데먹는것이 간단도하고 여러개의상을 보는번삽한 수단을 피할수잇슬것입니다 따로 따로 상을보아서 먹는것은 다만 관습에 지내치는것이니까 맛당히폐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밥먹는데는 정해야 할것이고 놀한군데에서 하는것이 조흘것입니다 식당으로써 한군데를특별히정해노코 뎍당한 설비를하면손도쉬웁게 날것이고 또한위생뎍이며 편리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긔식구를 먹이는것보다도 손님대접에 더만흔물질과 더만흔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됩니다 손님이오면 어느해를 물론하고 음식대접을하게되며 또는이때까지의 습관이되어서 손님들도 어데먹지안흐면 섭섭해합니다 그러나이런 낫븐버릇은 속히업새버려야 할것입니다 불필요한방문이 남에게폐해가되는것은 물론이며 더구나남에게 음식까지 폐해를끼치게되는것을 생각하고 이러한것은 피차삼가야 할것입니다

생일이나 제사날에 굉장한음식을 차리는것은 사실필요업는짓입니다다른방법으로도능히할수잇슬것이며 그날을긔념하랴면 음식을굉장히안차리고도될수잇슬것입니다생일밥제사밥어더먹으러 아츰부터나스는 우리나라부인네들의 심사를 알수업습니다 … 일것은아닙니다

음식은되도록 간단히 필요한정도이상을 넘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더구나 잔치나연회는단연히업새버려야 할것이며 먹기위하야 허비하는시간을 되도록경제하여야할것입니다(끗)

우수운말

쌀이만허

자미잇는우슨 말이잇거든적어보내주시요

새사돈이와서 밥을 대접하게되어 겸상하고 밥을먹는데새사돈이돌을 여러번 깨무니까 주인이 미안해서

『아-밥에 돌이만히든게요』

새사돈 『아니요 쳔만의말슴이요그래도쌀이만하요』(苑安木卯生)

충자발생

어연순사는 호열자환자(患者)발생을 호열자충자(虫者)발생이라고읽고 또어연순사는 보통(普通)학교를지통(晋通)학교로읽엇다한다 (龍學 大目生)

상의
人事、衛生、育兒、法律、家庭 科學的講話

식전담배를 피여서그런지오

【문】 나는매일아츰일어나든마다 곳궐련을두세개식련속하야 피우는습관이 잇는데 그것이 원인인지 정신이 흐리하고아츰밥맛이 업습니다 만약원인이라하면 그것을 는허야할줄은알지마는 여러해동안 습관이되어서 그도어려울듯합니다(開城一讀者)

【답】 당신의생각하시는바와가티 식전담배를 피우시는것이 원인이온즉 결단코 그대로계속하지마시고 식후에 피이도록하시되 그것도 넘우과하면 해롭습니다(一記者)

왼손잡이인듯합니다

【문】 생후이년육개월된사내아이가 몸은 매우튼튼한데 무엇을 하든지 왼손을씁니다 왼손잡이는정신에부즈런지몰으나 잇는까닭일가요 또한 엇더케고칠도리가업겟슴니까 (西大門町李敬淑)

【답】 왼손잡이는절대로정신상무슨 잘못이잇는까닭은 아닙니다 습관으로 인함이오즉부모가주의하야고쳐주면될것이올시다(一記者)

가을철에들어서며 머리손질하는법 (一)

어느듯 가을철에들어서 기시작하니 머리에빗질을 하기가무섭게 머리칼이쌔집니다 머리칼이 쌔지는것은 무슨원인이며 이것을막으려면 엇더케손질을 하여야될는지 그자세한법을 여러분께 말슴하려합니다 머리털을 중요히녁이는 원반부녀자들은 반드시한번읽어 실행하기를 바라는바이올시다 모발에도 생명이잇는것은 다시더말할것 업거니와평균 십만개가넘는 막대한모발이각각 그생활을 경영하여가는데는 거긔에도 생(生)과사(死)를 면할수업는것은 당연한일이니 머리털이쌔진다고 반드시겁낼일은아니올시다 남녀의별、년령、시긔기타다소간 다른점은잇스나 건강한사람으로 하로백개내외의 머리칼이 쌔지는것은 생리뎍이라 하겟습니다그러나 이백개나삼백개식 쑥쑥쌔지는것은 그대로 내여버려둘수업습니다 머리칼이 쌔지는것은 비듬으로 말미암는일이 대단히만흔고로비듬이만흔이는머리를 깨긋하게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겟습니다비듬은두피(頭皮)가신진대사를하는결과 생기는 로폐물(老廢物)이니여긔합병증(合併症)으로피지루(皮脂漏)가일어나면마츰내탈모증(脫毛症)이생기게됩니다 그럼으로 비듬은 머리에 잡거잇도록하면 못쓸것입니다 녀자들은 적어도한달에 두번이나세번은 머리를 감어야하겟고세발료로서 보통 사용하는것은비누、머리감는약、계란、좁쌀뜨물、북어삶은물등을 사용하야 왓스나 조치못한 비누나 머리감는 약에는 아루가리성(性)이 강한 고로 머리결을 상하는더이 올시다 비단풀(布海苔)이나 밀가루나 좁쌀뜨물에감는것이 머리결이 부드럽고윤택할뿐아니라 돈도 경제가 될줄압니다 그리고 머리감는데는모근(毛根)의 영양을 겸한세구소-푸가주장되는듯합니다이것은 할수잇는대로 거품을일으켜서 사용하는것이 조흡니다때가씨진후에라도 맑은물이 흥건지지안토록 몃번이든 잭고감을것이요 맑은물에붕산(硼酸)을조금타는것도좃습니다물에엇는 것보다 잘풀어지는 가용성붕산정(可溶性硼酸錠)을 사용하는것이더옥편리할것갓습니다 머리를 감은뒤에는 마른수건으로충분히 물긔가업서지도록하고그늘에서바람에말려야하겟습니다 기름을바르지안는이에게는상관업스나기름을바르는이는 아못조록 조흔것으로선택하야머리가다마른후에고루두발느되 손가락끗흐로 가벼운마싸-지를하면발모긔뎐상(發毛機轉上)의의잇는자극이될것입니다-(계속)-

世界婦人巡禮

스러저가는민족(民族)인데안의안해

『컬넘버스』가새로운 영유를발견하야지금커와가티백인종의노리터로변한ㅣ그런의 아메리카!그곳도 몃천년전에는얼마나문화가발달되엇는지아죽도그들의 폐허(廢墟)를발틀여면 그들의유물(遺物)이발에채여나오든답니다그러나그『인데안』들은권청키지는세력미레서스러저가나니이사진의녀자!가엽슨『인데안』의안해는녯날케종족이파노코또한그들의눈물로고힌누물의물을깃고잇습니다오!그우물에고힌눈물이마를때에는그네들의종족은어듸로올가야차저볼는지? 그래서그런지그『인데안』의녀자의노래는엇지도구슬픈지모른답니다

◇어만인중에하나인녀자 사진의어녀자는미국『칸사스』대학(大學)녀자일비아나、마스웰이라는 녀자이니 이 녀자는 염통(心臟)이올흔쪽에잇답니다 그러나 몸에는아무런변화가업다니 이상한일이오 진긔한것만나는 미국에 또한 진긔한녀자이올시다

最近日本文壇鳥瞰 (四)
李北滿

『無政府共產主義는 超個人主義가아니고무엇이냐?』『맑쓰主義的文藝論도 成立될수는잇스나 맑쓰主義文藝論만이超個人主義文藝論은아니다』『共產主義에는 必然的으로攻擊外頑頹이잇다』 이러한 反駁이잇섯고 그以外에아나키스트들 卽麻主義 土谷義三郎 望月百合子 加藤一夫 等等……여러사람에게서反駁과罵倒가쏘다젓다 이에對하야靑野季吉이 아나派에서도만흔論駁이잇섯다 그러나지금에그들의論文을 引用할必要까지는업슬줄로생각한다 웨그러냐하면 그것은벌서 아나派의慘敗로써終幕을지엇스니까 다만나는 그들아나키스트의 誤解와認識不足을 簡單히말해두겟다 그들아나키스트들은 다가티 콤뮨니슴에는 强權과支配가잇고말아서콤뮨니슴文藝는 黨派文藝라고惡罵한다 그들의誤謬는이곳에잇는것이다 그들이말하는 어느時期까지支配가잇다는것은 우리도肯定하는바이다 그러나그支配가永久한 支配가아니고또한색르조아나封建時代의 支配와는判異한것을 그들은認識치못하고 中央集權制라는 名目만을 보고날뛰는것은오히려憫笑할일이다 또한볼스비슴文藝理論을黨派文藝라고보는것은 黨과文學者의關係를理解치못하고 볼수비슴文學者들은 黨의命令에絶對服從하지안흐면안되는그런 不自由한地位에잇는것으로 誤認하는까닭이다 그들에잇서서는볼수비슴文學者들의 精神을認識지못한다 卽볼수비슴이우리의피가되고살이되엇것을 또한우리는至今에 ××××政治鬪爭主義立場에서모ㅣ든部門을認識한다는것을 理解치못하는데서 그러한誤謬가생긴것이다 最後로現階段에잇서서 색르階級과프로階級以外에다른一階級을認定하는곳에 그들의푸티색르조아的다시말하면反動的根據가잇는것을알수가잇고組織을否認하는곳에는絶對로超個人主義도存在치못한다는것을말하야둔다 이리하야어느時期까지最左翼으로自負하든 아나키스트는至今에는完全히反動化하고 沒落한것이엇다

四、農民文藝의反動性

日本의第一次反動軍閥內閣인田中氏一黨은 그들의可憎한政策으로써 新興하는中國民衆을壓迫하고 全被壓迫大衆을威嚇함으로써그들이 東洋에在한反動의支柱인것을證明한다 그럼에도不拘하고 現在日本의農民文藝家라는者들은 意識的으로反動의走狗되엿것을알지못한다 우리의憤慨는 一層더크지안흘수업다 그들所謂農民文學者들은말한다

『農(土)의文藝는 엇더한意味로보아서든지 ××文學이다!』

『흙의文學은 偏狹한(!)階級文學은아니다 그는 都市프로레타리아ㅣ트가부르짓는文藝가아닌것은두말할것도 업지만 그러타고農民프로레타리아ㅣ트의색르조아에게對한反抗的文藝도아니다(農民文藝十六講及農民文學研究)』

그러면 이偉大한文藝는果然엇더한것인가 우리는그들의對答을듯자

『그는(흙의文藝)當來하는社會의文藝요 當來하는社會의意識觀念에立脚하야創作되는文藝이다』

『우리의藝術家의 窮極態度는무엇보다도먼저 우리의社會生活에根底를둠에다두지안흐면안된다』(同) 어대까지든지 흙에서모든것을보고批判하지안흐면안된다』(同)

이偉大한 藝術 엇더한 意味로보든지 ××文學이요 階級鬪爭을偏狹하다고 一蹴하는大乘文學(그들의말)은結局흙의精神이란偉大한精神을가진文藝인것을우리는알엇다 그러면所謂흙의精神이란무엇인가?

童謠

엄마생각
윤석중

어머ㅅ님 그립허면
언제나혼자
뒤ㅅ동산 뫼에올라
울엇습니다

무덤에난 패랭이
꼿닙을따서
한닙한닙 헤치면서
울엇습니다

가을ㅅ밤
金海卿

어지러히 어울려 울든 실솔의 소리도 끈허저 가는 새벽에
멀리들리는 다듬이소리ㅡ
고향안해의 그리움이 더욱 새롭네
나는ㅡ
써커지는 가슴을 안ㅅ고 눈을 감고서 뒤둥글엇네
鍾安에서ㅡ

錯覺的文藝理論
金華山氏의愚論檢討 (五)
林和

『푸로레타리아』藝術은 푸로레타리아美意識을 基底로한다 푸로레타리아美意識은 健康하고 明快한無產階級意識의 表現이다 이無產階級意識은『아나키슴』에依하야代表된다』(金華山)

이것은 氏의唯一한 푸로레타리아藝術의理論이다

卽 푸로레타리아美意識의 階級解放의 熱中한푸로레타리아가 가커야할唯一한藝術이다 나는여긔서 氏의다음의 말을連結시키겟다

『社會組織을 土壤 이라하면 藝術은 其上에 生長하는草花이다』

『問題의核心은社會××에잇는것이아니라藝術그것에在하다』(現代評論六月號金華山氏)

벌서말한藝術草花說은前者尹氏한테痛烈히論破되엿바잇섯스나 그는다시誤謬된自身의理論을彌縫키爲하야長久한辨明을加하엿다 그러나問題의核心은社會××에잇는것이아니라 藝術그것에在하다라는 氏의所論에依하야辯明할餘地가업슬것이다

더구나本論初項의引例를보라 全無產階級은二元社會에在한特殊層인政治鬪爭分野에로總力量을集中하엿슬때 푸로레타리아藝術家는美意識을基底로한藝術行動을하야서階級的使命을能히다할수잇느냐

意識過程의問題로서 무엇보다도現段階에잇서서重大한吾等의問題는組織的인大衆活動力의養成이다 卽無產階級의政治的敎育 말하자면文藝는政治的役割을맛는데서비로소意義가잇는것이다

現在에잇서서 無產階級속에서美意識을차즐수가잇느냐? 草花가될수잇느냐? 氏의小市民的認識誤謬가여긔에잇다 氏는現段階를認識치못하고 鬪爭過程과意識過程그것을몰으는것이다 그러고오즉氏의藝術은溫室에서生長한斷菜이고草花일것이다 藝術至上主義! 색르조아의代辯者 階級背叛者! 金華山氏等을排斥한다

吾等의理論鬪爭은如斯한意識的反動派를擊滅 驅逐하야써方向轉換期를過程한다

五

小論은意外로길어젓다 彼等과如한(金華山氏는 姜虛峰氏의理論과本質的差異가업다 고말햇다 그럼으로나는彼等으로본다) 輩를相對로하야以上더論議를繼續한대야아모所得이無할것이다 오즉一二引例로써彼等의理論의

邊境漫遊 (十七)
松園生

火曜日이西山으로기우러질때一同은滋谷를離하엿다 우리는前路의關係로그날그곳을떠나廢山으로向하려하엿스나 그곳사람君의懇切한挽留에마지못하여다시古邑洞에서一泊하기로하고지는해 돗는달을벗삼아길을찻어 이에서흘러나오는버레의소리를들으며古邑洞에들어온때는발서午後八時더라

◇아!不過의天才여!

翌朝에早起하야朝食을마치고出發하랴할準備를하며一同員을點考하니 一行中金鱗月君이行衛不明이다 洞內를搜索하여發見하니그는數三友人으로더불어飯酒에醉하야 氣高萬丈이다 一行의出發를促하엿스나 滋甚하되바야흐로酣興이일기시작한그에게는世上萬事皆不關焉의格으로모든말이馬耳東風이다 그는발서例에依하야脫線된것이다 君은元來明敏한頭腦의所有者요또한快活한性格의持主다 그는참으로 慶興郡이產出한天才라할것이다 그러나그의環境과事情은그의天賦한 才藝를任意로發揮치못하게하고 그로하야금뜻아닌生活에 억매여노코만것이다 다시말하면그는『事情』이라는 强敵에게敗北를當한者이다 그로부터그는自暴自棄의傾向이업지안는同時 一種墮落의經路를밟게되어 恒常술잔을親하게된것이다 엇더케보면술의힘을빌어 自己의마음을慰勞하려고든 불상한靑春이다 그러나才質과性格이 남달리獨特한그는술잔을對할에도 凡人과는달은 卽脫線이라면脫線的行動만하여서 그를理解치못하는世上사람들은그에게 對한非難과誤解도업지안커니와 그의性格을充分히理解하는나는그의그러한行動을볼때마다 그로하여금그러한길을밟게하는그의『事情』을 咀呪치안홀수업는同時逆境에서헤매는그의靑春에對하야側隣의情을禁치못하야恒常暗淚를먹음는바이다

世界社會文學者評傳 (一)
『루나찰스키ㅣ』

『루나찰스키ㅣ』는勞農露國人民文部委員의要職에處하야 단지諸種의 藝術이나 科學上의團體의首腦일뿐아니라 事實上의地球上에唯一의 新國家勞農露西亞의文化를 指導하고잇다는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周知하게된듯하다 그의經歷에對하여서 지금은仔細히말할수업스나 엇쨋든幼時에벌서反逆兒이엇스며 또한『레닌』가튼이와交友가두터웟든것은 事實이니 『쓰르기』에보내는『레닌』의書簡集中에도明確히씨워잇다

氏는革命運動에밧브면서도戱曲을썻다 그만흔戱曲은目的意識을가진『로만틔』『寫實主義』라고말해도 망발은아닐것이다 여러가지點으로 우리들이배홀만한것이만흐며 또한그는美學에關하여서도勞作이만타 그의作品中에는『解放된 똥키호ㅣ테』(十場戱曲)와『實證美學의基礎』等이 아마널리읽혀진줄안다

새세상사람들 (五○)
柳夕影 作 畫

八의十

래호일행이 느리ㅅ골주막을나슬때에 래호는 새벽에 당노한두행인이 누구인줄도몰랏다 또알려고도 아니하엿고 또황서방부녀도 실상은 래호와한주막에서 누어자면서도 신이아닌그네들은 서로알길이업섯다 래호일행은 급히떠나려는관이요황서방부녀는 밤길을걸어온지라 피곤함을 이기지못하야 깁히잠이든지라 서로지척이엇스면서도 애닯게도 그네들은 서로서로 장차어느디경까지 갈리지 과연모를일이엇다。

마츰그때 래호의머리가온데에는 새벽에 불려들인 행인이 만약 손해를주인에게서치게된다할진대 자긔가 그것을보상이라도 하겟다고 주인에게 한말이잇는지라 떠나는길에 이러타 말한마대업서서는 실로히 실업슨 사람이될것가텃다 한번주인을불러 그러한말이라도하고 또과연그사람들이 엇더한사람인가 한번쯤보고도십헛다 그리하야 래호는 주인을불럿다 마츰주인도 태호일행의떠나는것을 전별차로 나왓든판이엇다

『여보주인 새벽에들어인사람들 자는방이 어듸요?』

『바로 요방이올시다』

주인은 밧갓주막방을 가르치면서이러케대답하엿다

『좀열어 볼까?』

『군질군질한데들 무엇하려보시게요?』

『글세 만일그네들이불미한행동이라도잇다하면 내가 당당한다고한바에 한번쯤은내가 그네들을 보아둠즉도하고 또 늙은이가 어린계집아이를 다리고밤길을걸어 그러케왓다허니엇전지 그네들의 사정도알고자 보고십소』

『원별말슴을 다허십니다 보시는것이야 상관업지만요사람들가티 잔간보아도 괜찬은 사람들가트니 그런걱정은마십시요』

주인은말을 맛내자 먼저가서 방문을열고 안으로 들어스고 래호도 방까지는 들어가지안코방문에 머리를데밀고 그안을들여다보앗다 엇전지 방안에서는 이상한퀴퀴한냄새와 후덥지근한 긔운이 훅몰려나온다 아즉날이새지못하야 그안은 잘들여다볼수는업스되 모도들 우리가려코를골고자는박윤잠으로 래호는 들어가고십지안헛다 또그러케 곤하게자는잠을 깨우기도 애처로운듯도십허 그대로 주인을불러내엇다

『여보 그만두ㅣ 무엇볼것업소』

주인도 역시다행하다는듯이 방문을다치고 나와버리엇다

마츰또 그때엇다 방에서는 황서방이 한참 단잠이들엇다가 문소리가 나는바람에깜작놀래엇다 자긔의 생명보담도 더욱앗기는 복주의 신변에무슨변일이나 아니생겻가하고그러치안허도 나히찬딸을다리고 주막잠자기는 실로히못할짓이엇스나 부득이한 일이엇든것이다 그리하야 될수잇는대로 주의를하고 잠을안자려고 별르든판이엇스나 두상안잡은 그만잠간황서방을 사로잡어갓든것이엇다

황서방은 눈을떠서 엽흘바라보앗다 치운듯이 오구리고그래도 잠이오는지 색색하며약간의 알는소리를내고 복주는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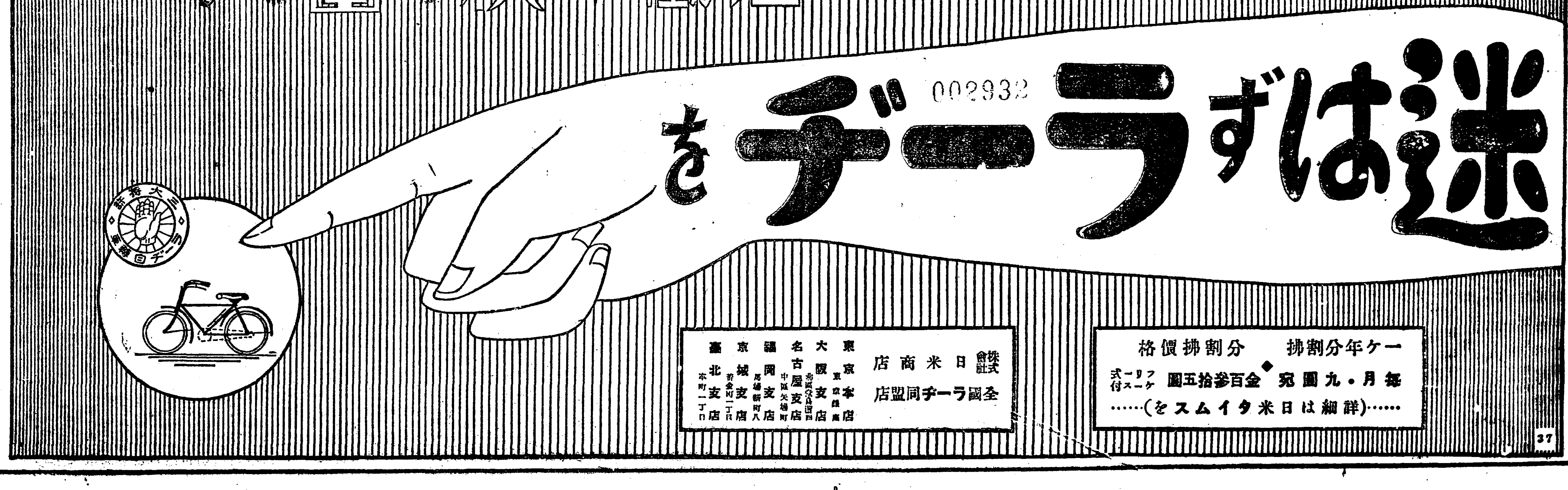
그케야 황서방은 안심을하고다시 눈을감엇다 가만가만히하는말소리가 약간 들려오나밧게서는 주인이 새벽에떠나는 엇던손을 작별하노라고그리나하고 례사로 알엇슬뿐이오 밧게서서 말하는이가방금자긔의 애를쓰가며 차지려하는 그사람인줄은 과연몰랏다 애닯은 일이지마는 모르는가온데 이 두 서로떠나지못할사람들은 느릿골주막에서 아모뜻업시 갈려저가는것이엇다、

태호일행은 주인과작별하고 부대한번씀 다시 자긔의집을 차즈라는부탁과 또새벽에 온사람들은 자긔로해서 들인사람이니 후일에맛나거든 하회를말하여달라는 부탁을 남긴후에 느릿골주막을등지고 떠나가고 황서방은 다시잠을자려하엿다

황서방이 막잠이들려다가 복주의 흑흑늣기우는소리에 눈을번쩍떳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十日 正午 七七、○
◇比較 九日 最高 八一、九
◇日出前六時○九 晝間十二時四○
◇日入後六時四九 夜間十一時二○



繁忙期에際하야 鐵道局輸送計劃

夏枯閑散期를經過하야今後貨物輸送繁忙期에入하랴는昨今鐵道局에서는此對策에對하야硏究中인바이만치이에對한輸送計劃이不遠間實行될秋季機動演習의終了를待하야配慮하게되어잇스며그리하야昨年의輸送繁忙期에對한該計劃은一日의輸送量一萬二千五百噸을標準으로實施하엿스며實績은一萬二千噸平均이엇고今年은豊作으로因하야 穀物의川廻와各地鑛業界의活躍으로因하야石炭其他燃料의供給增加及新春準備의輸送增進을豫想하고一日平均一萬四千噸의輸送計劃을樹立코저準備中인바이에使用할貨車는無蓋有蓋를合하야二千八百三十輛(內百三十輛今年中에竣功)으로現在六百三十餘輛의剩餘車를가지고直時配給케되엿다더라

光州公普 盟休對策講究 學父兄會開催

光州公立普通學校盟休事件의對策을講究키爲하야지난六日에學父兄會를開催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가티七日午後四時에續會를私立光州普通學校講堂에서張鎭涉金容煥兩氏의司會로開會하고點名及會錄朗讀이잇슨後昨日選定하엿든調査委員代表姜海錫氏가登壇하야調査狀況報告가잇섯는데此에對한對策講究로長時間討議가잇슨後左記事項을決議하고其實行은幹部會에一任키로한後同九時에散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今番事件에對하야山本校長은全責任을負하고辭職하도록勸告할事

二、池元鍾先生은復職朴昌煥金洪吉李寬秀金鍾洙四先生은留任시키도록道當局에抗議及交涉할事

三、現光陽公立普通學校長正木俊雄의非行을調査하야全朝鮮社會에聲明할事

四、李圭泰尹炯裁兩先生은轉勤케하도록道當局에交涉할事

五、授業料는郡當局에서直接으로學父兄에게徵收케하고先生과學生間에는關係치안토록交涉할事

六、學生登校는問題中에잇는山本校長과李圭泰尹炯裁兩先生은敎授치말라는條件付로登校시길것

今年의石炭狀況

石炭界는日本採炭制限이잘勵行되야今年은降雨가적고渴水에苦痛한各水力電氣가火力發電으로石炭을多數消費한것과工業方面의消費가經濟界不況이매우만음으로市況이活潑하며若松炭은前年에比하야一噸當一圓으로부터一圓二三十錢의騰貴이며前年은朝鮮이日本炭投賣市場과갓치되어投賣와日本으로輸出難炭에全然攪亂되엿스나今年은全혀此와反對이다一例를들면三菱과갓흔日本炭은朝鮮에서만需要될뿐으로今年은移入與否조차도를알수업스며撫順炭의態度에對하야京城出張所의意見을드르면三浦所長은目下日本各市場을視察旅行中인바如何間市場追隨主義로朝鮮內의炭價가決定되면若干의價格이빗차질듯한氣分이잇다撫順當地나南中南洋及日本이모다 市況活潑함으로 炭輸送에 奔忙한狀態이며撫順의日本送炭은年百五十萬噸의協定으로例年은至今까지의閑散期에三分一位를賣하고殘餘三分二를十月以後의繁忙期에賣却하는것이普通이엇스나今年은이미二分一을日本에移出되엿다그리하야이미全部가需要側에渡한狀態이며朝鮮炭은此影響을受하야活氣가어들模樣이나어는것이든지採炭設備가弱小함으로急히出炭을增加할수업다가장期待되는鳳山炭과갓흔것도鐵道의納炭을契約하며로納入하면市場에出할는可知할뿐이며咸興炭은同地方의需要激增한과炭脈이貧弱함으로此亦出炭의增加는餘望이업고安州炭이前年落盤으로出炭이減少되엿스나今年은復舊하야若干市場供給이增加한다하나此亦微弱한것이다其他의炭鑛에至하야는다시만흔것을希望치안으며此機會에朝鮮의炭鑛業者도後年의苦境에서幾許에活氣를어드리라고말하며가징渴水로活氣를失한日本의炭界가언제까지如此한景氣를繼續되면採炭制限이破壞되리라는等不安한材料도업는바가아니라더라

平北大寧江 防潮堤問題 地主會도流會

平北嶺美압大寧江防潮堤의復舊工事費補助를總督府當局에請願하엿스나何等의答案이無함으로同區域內地主의大同團結로此를

清津附近 有望金鑛發見 三十鑛區出願

朝鮮에서産金奬勵는金解禁後의新界活躍을豫想하야總督府當局에서도此에對策을講究中인바最近淸津雄基間에有望한金鑛이發見되어目下總督府로부터志賀技師가出張하야調査를進行中인데地點은淸津으로부터北方三里의곳이며此邊一帶에二十鑛區假量이잇서此三十鑛山만은認可를得하야試掘할터인바含金量이豊富하고또交通이至便함으로精鍊用에河川利用도至便함으로調査班의歸任後는大大的産金計劃에對하야業者와妥協을行할것이라더라

醴青講演會 近來初有의盛況

醴泉靑年同盟에서는今般本報主筆安在鴻氏의來醴를機會로去六日下午九時부터當地能仁校講堂에서大講演會를開催하얏는데場內는勿論庭內까지도滿員을일우어近者初有의大盛況이엇섯다는바演題와演士는다음과갓다더라(醴泉)

階級鬪爭과民族意識 [illegible]
過去의運動을回顧하면서 安在鴻

慶北道內 秋蠶豫想收高 九千餘石

慶北道內에秋蠶第二回豫想을들은바에依하면蠶兒發育은各地를通하야良好하다는바其收穫高는九千餘石으로前年에比하면一千餘石即一割三分增收豫想인바第一만흔地方은金泉이八百五十石醴泉七百七十五石, 慶山六百三石이라더라(大邱)

客月中에 入國한外人數 國境을通過하야

客月中國境을通過하야入國한外國人은如左

	男	女
無國籍露人	七〇	三三
英國	一〇	八
米國	二七	八
쏘베트聯邦	八	五
佛國	三	
하란	一	
獨逸	五	
其他	三	二

다시職業別로보면

	男	女
商人	三三	一七
農業	二	
會社員	一三	
敎員	七	一
官吏	九	
學生	一七	二
牧師	一三	
音樂家	一	
勞働者	一	
看護婦		一
無職	一三	

白米包裝에 叺대신袋를쓴다 袋入은叺入보다十錢高

府內精米業者는八月一日부터寄히重量建販賣를實行한바그것도全部叺를使用하기때문에品質不統一의缺點과不正을招來할餘地가有하야此點에着眼한今村精米所에서는日本에移出할袋入과同一搗製의品質의것을袋入한대로此後부터一般市民에게供給을開始하야同業者에게衝動을與케될터이다同袋入에는檢査의證據되는封印을施하야檢査規定에據한事를示하고袋는十錢에買上케됨으로結局叺入의白米보다一斗十錢高價量으로良質의米를食하게될터이라더라

慶北醴泉에 新幹支會를設置 ◇去六日盛況裡에

慶北醴泉에서는表面으로新幹會支會設立에對한準備會議等의形式을보지못하얏스나實際에잇서서는有志諸氏의努力이多大하엿든結果畢竟지난六日下午三時에當地元能仁學院內에서發起會의形式을省畧하고바로設立大會를開催한바會員은七十餘名中出席者五十餘名과其他傍聽者等으로場內는滿員인盛況裡에서金相起氏가開會를宣言하매當地警察署에서는警部補以下五六名의警官이臨席하야會場은緊張된空氣가充溢하엿스며權元河氏로意味깁흔開會辭와經過報告가잇슨後臨時執行部를選擧하니議長權元河文夏永書記金相起朴應緖查察尹雨楨朴定鮮諸氏가被選되엿고來參한安在鴻氏가趣旨를詳細說明한後綱領規約朗讀과祝電祝文朗讀을마치고來賓祝辭에이르러尙州支會姜鸎氏의祝辭가잇섯고任員選擧와維持方針에對한協議가잇슨後同五時四十分에閉會하엿더라

繼續幹事會

設立大會가끗난後即席에서幹事會를開하고部署決定과會館問題에對한討議를하얏다는데如左하더라

◇部署及幹事

會長 安鑑 副會長 李大一 總務幹事 庶務部 權元河 政治文化部 金效鍾 財政部 黃炳璽 調査硏究部 文夏永 組織宣傳部 申熤 幹事 朴英鎬 朴琛根 張秉億 金鎭基 朴益祥 李淳穀 崔榮錫 權泰漢 文仁來 尹禹鉉 (但常務는總務幹事가兼任)(醴泉)

釜山에 新幹支會事件 九日大邱로押送

新幹會釜山支會事件으로林赫根裵憲林榮澤三氏는지난三十一日에釜山支廳에서各其一年六個月又는一個年의判決言渡를밧고即席에서不服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九日釜山發裡里着同驛午前七時五分大田行列車로大邱刑務所로押送되엿다더라(裡里)

咸北城津에 新幹支會設置 九月十四日正午에

旣報와如히新幹會咸北城津支會準備委員會에서는設置大會를召集코저그동안諸般準備에紛走히努力하여오든바九月十日正午十二時에新幹會城津支會設置大會를城津靑年會館內에서開催케되엇다더라

蔚山敎育總會 來廿五、六兩日

慶南蔚山敎育會에서는該會會則第十條에依하야九月二十五、六兩日間午前十時부터午後五時外지蔚城公立普通學校內에서第三回總會를開催하고會務報告、會員演說(敎職員以外의會員)名士의講演、會員硏究發表(敎職員)等이잇슬터이며同附帶事業으로서郡內公普校職員兒童乃至卒業生等의製作考案된敎育品展覽會外지開催하고一般에觀覽케하야敎育思想의伸展에資코저하는바敎育總會附帶事業으로서는他郡에서其類例를일즉보지못한好事業이라하겟더라(蔚山)

北靑新昌里 漁港築港期成 面民大會開催

咸南北靑郡新昌面新昌里에서는去四日午前十二時부터本里靑年會館內에서漁港築港期成會主催로新昌面民大會를開催하고臨時會長姜信篤氏司會로意味深長한趣旨說明이잇고其他事業方針을圓滿히討議한後午後四時頃에閉會하엿다는데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新昌)

◇決議事項

一、築港工事費中金三萬圓은道當局의陳情할일

一、金四千圓은面財産家及篤志의寶助金으로二回에分하야拂入할일

一、金三千圓은面民共同負擔으로二回拂入할일

一、金二千圓은面基本財産中에서面負擔으로할일

一、金二千五百圓은新昌漁業組合負擔으로할일

一、金二千圓은漁船及雜收入으로할일

一、金三千圓은海岸工事畢役後新出垈地一萬四千坪을賣却하야工事에充用할일

一、金一萬五千圓은面民共同賦力으로換算할일

東海岸南部 通信方式改良

慶北江口는朝鮮東海岸에서鯖漁의本場으로朝鮮의釜山 元山線及釜山 鬱陵島線의汽船도寄港하야盛漁期에는매우繁昌한바從來此方面에着發한電報는總히電話機로서通信하엿섯스며故로常時輻輳를不免하엿는바今番通信方式을改良을 加하야 會線機를據付하게되엇스며또回線도從來의盈德間을接續하든것을浦項에서로直二回線으로할것等의決心으로改良을施하게되어不遠間工事에着手할터임으로此方面의電報는現著히速達될터이라더라

戶別割增加로 安城郡民大憤慨 ◇免稅한極貧者에게도徵稅

旣報＝戶稅는每四月一日現在戶數에依하야決定한賦課額을二分하야第一期四月末日限、第二期九月末日限의二期로徵收한다는道令에依하야今年度第一期分外지旣爲徵收한이때에京畿道로부터突然히昨年十二月末日現在戶數로戶稅를다시調定賦課하라는無理한强壓的要求를管內各郡에하엿다는바該理由는前記道廳에서今年度地方豫算歲入出豫算編成할때에係員의過失로戶稅를昨年十二月末日現在戶數(極貧者와又는獨立의生計를營爲치못하는者로서戶稅를免除할戶數가全部包含한統計)로計上하엿든바實際에잇서管內各面에서調定한것은規定에依하야四月一日現在에極貧者와獨立生計를營爲치못하는戶數를免除하고賦課하엿슴으로이를前記十二月末現在에比하야三萬餘戶가不足됨으로此를彌縫코자그와가튼無理한賦課를시키는것이라는바이에對하야安城郡各面에서는從來의戶稅를免除한極貧者外지戶稅를賦課하는同時에그差額은一般的으로增加徵收할뿐아니라또한前記戶稅와는別部分인戶別割(面費)戶稅附加金(學校費)外지前記戶稅比例로增加徵收함으로當地人民은더욱憤慨하는同時에輿論이沸騰하다는데探聞한바에依하면前記事件에對하야他郡에서는戶稅만을增加하고戶別割과附加金은一期決定대로徵收하는곳이만타더라(安城)

本年度 滿米輸出餘力 百四十萬石

本年度滿洲米는作況이良好하야正租로二百八十萬石인데此를玄米로調製하면百四十萬石이되리라고豫想하는바滿洲에서消費할四十萬石을差引하고百萬石의輸出餘力이잇는데從來白米로輸出한結果聲價를傷한經驗이잇서玄米輸出은例年問題로되어잇는터인데本年도同業者間에玄米輸出論이高唱되더라

次期穀物大會 江景에開催

本年九月廿七、八兩日의全朝鮮穀物大會는新義州에서開催케되엇는데江景側으로부터의希望도잇서서次期大會는江景에서開催하기로되엇더라

自由同盟創立 元靑의勞働者

元山靑年會에서는同會의維持方針兼事業의第一步로會員各自의勞働을實踐하기爲하야지난八日下午四時부터同會館內에서勞働者自由同盟을創立하얏다는바宣言과綱領은如左하더라(元山)

◇宣言

現今朝鮮의勞働組合運動은一大危期에當面하고잇다我等勞働者는權力慾과支配慾에熱中한野心家等에게餘地업시蹂躪되어組合運動의根本精神을忘却하야왓다 此際에我等은我等의運動을攪亂하는彼輩를階級戰線에서徹底히除去하는同時我等의本來的任務를遂行할것을宣言하노라 玆以勞働者自由同盟을組織함

◇綱領

一、我等은當面의問題를解決함과同時新社會建設에努力함

平北의牛肺疫

平北博川地方에牛肺疫은今月에入하야三日에一頭七日에三頭合計四頭로數字上으로는大概沈衰하야잇스나同病은秋期에入하야流行할傾向이잇슴으로當局에서는一層警戒를嚴히하는中이라하며同地方에牛疫이初發以來七十四頭에達하엿더라

萬城靑年 俱樂部復興

京義線萬城驛前은中等敎育은勿論初等敎育도다른곳에比하야落伍되어잇는中當地에人士들이二三年前에萬城靑年俱樂部를創立하고社會事業에만흔힘을쓰다가有耶無耶中看板을埋藏하야버리고말엇슴을大端遺憾으로생각하든有志李炳德氏는지난六日午後七時에萬城公立普通學校講堂에서復興會를開催하고出席會員二十名으로하여금左記와如히任員選擧를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더라(萬城)

總委員長兼經理部委員長 李炳德
文藝部委員長兼運動部委員長 孟俊吉
書記 文得弘

牙山陰峰 公普位置問題 一般의怨聲漲天

忠南牙山郡陰峰面에서는元來公立普通學校가업서서就學兒童의困難이太甚하든중이를痛歎하야마지안는面民들은成學契도만들어보고여러가지로學校設置運動을하여왓스나元來該郡內에第一貧村인同面民들은언제까지나所期를達할수업든바慈善家로著名한京城尹致昊氏가今春에同面의事情을諒察하고 五千圓의大金을寄附한바가잇섯든바이에活氣를어든同面面長金正鎬以下面民들은東奔西走하야活動을게을리아니한結果一萬二千圓이라는巨金이收合된바이로서 學校는設置케되엇스나位置問題에對하야는勿論中央地인同面鋼岩里가最適地로一般面民이公認하는바인데同面學校期成會長인南鳳熙가엇더한心思로一般의主張도侮視하고야만다로同面十七區內에絶對多大數인十一區의便宜地임도不拘하고다만五六區의便宜를조차서不過十里許에牙山普校가接해잇는三五里로自己가期成會長인것을機會삼아學務當局으로부터認可를얻어든後前記一萬二千圓의積立金을會長及副會長二人의名義로某銀行에預金하엿든것을副會長의承諾도업시自己一個人으로서該金額을차자버린事實이잇스며本郡守는說明하기를三五里는李忠武公墓下임으로位置가適當하니면드라도上관치말고通學하라한事實이잇슴으로前記十一區의面民들은極度로憤慨하야認可變更運動을하는一方當局에數度陳情을屢次하엿스나 當局에서는「位置의不公平함은 自認하나이미決定한事임으로엇지할수업스니一般面民에게모든것을諒解식키라」할뿐임으로 그들은何等의效果도엇지못하고 다른良策을생각하야오든바이제當하야는雪上加霜으로로該面警察官駐在所로부터學校敷地工事에對한賦役만을强勸함으로前記十一區人民들은그에對한怨聲이漲天하다더라(公州)

萬城에修養園創立

京義線萬城驛附近은數百戶에達하지만集會機關이잇다가는有耶無耶케되어으로이를遺憾으로녁인萬城公立普通學校訓導諸氏와萬城有志數人의發起로萬城修養園을지난六日에創立하고每日午前五時에起寢하며當地普通學校運動場에集合하야孟俊吉氏指揮下에一時間運動을하는데團員은三十餘名이라고하더라(萬城)

新幹永興支會 設置準備 發起大會는十四日

咸南永興邑內에서는當地有志幾個網羅하야當地에잇서서도新幹支會의設置가必要하다는것을늣기어오든바지난七日午後四時에永興靑年會館內에서永興新幹支會設置準備會를開하고座長趙鳳熙氏가被選된後諸般事項을充分히討議하는同時에爲先發起大會는來十四日午後一時에永興靑年會館內에서開催키로하고發起大會의準備委員은左와如히十三人을選定한後無事閉會하엿다고(永興)

◇委員

(庶務)金元鎬 金泰鎭(財務)朴歡緖(宣傳)金景律 金龍觀 金鐸 崔鎭麒 文箕善 李命漢 趙鳳熙 禹仁洽 孟承云外一人

煙草合同會社 創立小委員會開催

全朝鮮煙草元賣捌合同會社設立의大體案을決定할創立小委員會는九日午前十時부터京城煙草元賣捌會社樓上에서開催한바出席者는平壤山根委員의病氣缺席을除하고京城高木、仁川河野、元山三隅、鎭南浦鈴木、群山磯部、木浦村上、大邱坂本、釜山村上의八委員이全部出席하야本九日은過般委員의手로서脫稿된定款及事業目論書의骨子案의閱覽을하고十日부터二日間審議를行하기로되엇는데事業目論書의主된것은財産評價의細目、株의割當、老舖料 問題等의重大事項이有한바小委員會에서審議가終了하고共히總代會를開催하고最後的審議를行할터이더라

平壤副業獎勵

平壤府副業調査委員會에서는去月三十日委員會를開하고副業獎勵의意味로適當한副業에對하야補助金을給與하기로하얏는데此에依하면左와如하더라

平壤本町崔德潤에게樂浪燒爐製造에對하야金一千圓을補助함
平壤鶴里李鎬基外一人타오ー리織工叢成에對하야金五百圓을補助함
平壤府廣餘奎李炳弼의麻紬織造에對하야는아직保存하기로함

右에基하야平壤府에서는去七日樂浪燒爐에一千圓타오ー리織工叢成에五百圓을補助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平壤)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扶安西部靑年會創立을듯고

◇九月六日付本報第二千五百十三號를通하야上西、下西、舟山三面의有志靑年들로網羅한西部靑年會創立이라는記事를읽어 다！아！이얼마나깃븐消息이랴！故鄕의모ー든消息中에 처음듣는消息이엇다 이제나는그때의운갑을이루어날이엇다가장깃거한사람으로서 欣喜와雀躍을禁치못하는남어지에 敢히貴紙의本欄을빌녀 熱狂의못다든을드는바이다

◇目下우리運動은 모ー든方面으로보아 方向轉換期에入하엿다 民族的單一黨인新幹會가創設된以來 春風秋雨 무슨히 자위오든우리의運動機關은 或은解體 或은合同 氣分運動에서 意識的 組織的運動으로着着進行하는中이다

◇이러한現狀에 當面한우리로서 이제야西部의첫소리를지르게된것은 저욱이晩覺之嘆도업지는안타 그러나大器는晩成이다 有耶無耶에歸한 所謂先覺者의組織을 거울삼아튼튼하고힘잇게뭉쳐가기를바라는바이다 그리하야 우리는우리를爲하야삼게차워라 여긔에비로소우리의使命이잇는줄알엇다

◇아직創立의消息만을들은나로서는 주저넘게여러말을加코저아니한다 오직意味잇고조흔綱領이나오기를 바랄뿐이다이것이 우리社會進化에對한 必然的法則에 順應하야誕生된以上 뉘라서敢히障害하리요 義勇게뭉쳐 自由롭게자라거라

◇끗흐로한말더하고자하는것은 便黨問題이다 이것은자못二千萬大衆은 손버러祝賀한다 西外舟山은地理上으로나 在來의不美한餘毒으로 便爭이일기쉬운곳이다 아모쪼록現下大勢에鑑하야 障碍이업도록 귀우부터注意할것이며 熱烈한氣脈을 全民衆에게通하기바란다 (林鍾諭)

木川少年團서 夜學部를組織

全北益山郡木川浦에서는當地少年團發起로지난一日부터育英夜學部를設施하고敎室은爲先當地李鳳淳氏家를使用한다는데不遠間에敎舍로適當히使用할만한當地某廳舍를修理使用키로한다는바現在兒童數는三十餘人이라더라(裡里)

論山의 無靑同盟臨總 九月四日에

忠南論山無産靑年同盟에서는지난九月四日午後八時에臨時總會를臨時書記朴勝華氏의開會辭로開하고議長李圭弘氏司會下에經過報告와會計報告가잇섯스며이어서討議事項을圓滿決議하고同十一時에無事閉會하엿다더라(論山)

◇決議事項

一、觀劇大會에關한件

一、不正盟員處理에關한件

一、敬老會에關한件

一、觀劇大會準備委員配定의件

一、周衣廢止宣傳中止當한件

芝浦勞働夜學

江原道鐵原郡葛末面芝浦里勞働夜學은三年前에成年勞働者들을爲하야李康列 金顯九 金興善氏外諸氏의發起로創立한後以來洞里申昌順氏家에서五十餘名學生에게普校四學年程度外지를洪淳寬氏의熱誠으로敎授하야그동안多大한效果를나타냇스나關係者一同은敎舍가업슴을恒常遺憾으로녀겨오든中今春에一般洞民의努力으로十餘間의校舍外지建築하얏든바不幸히今年여름暴雨로倒壞되엿슴으로不遠間改築工事에着手하리라는데經費로는每戶에서大豆一斗式徵收한다는바附近一帶에서는關係者一同을稱頌不已한다고(鐵原)

春川酒造業 一面一人許可

春川郡廳에서는管內十三面中春川面과新北面兩面內酒類製造販賣營業者近三十名의製造販賣權을지난八月末外지全部末消함과同時에兩面에各一人式의獨占的製造業者를두어 從來의製造販賣業者로하야금一體바더다가팔도록九月부터實施하게되엇다는바이에從來의製造業者들은非常한惡感을늣기고同時에不平이頗高하야 물의가크다는바이에對하야郡財務係乘畑主任은말하되『依例非難과不平은相當히잇슬줄알고잇슴니다그러나이것의非難과不平이잇다고해서엇커지못할方針으로처재로從來의多數의營業者들은從前보다營業이堅實히發展되지못하고一年以上을扶持하는사람이幾個人이못되는터이엇스며또酒類品質改善統一上으로보와서도此뜻이한사람에게맛기는것이絶對에必要하며檢查에잇서도前者에는豫測으로만하얏슴으로確實한數量을알수업든것이엇스나今後는具體的으로알수잇게될것입니다그리고稅金가튼것은從來도그다지困難되지는안켓지만더욱便利도잇고成績도조흘줄압니다』라고말하며 이만한理由로서그가리獨占制를實現하얏다는뜻을表하얏는데最近에春川面製造業者로는申泰敎新北面은南相鶴의兩氏로確定許可가지되어곳實現을보게될模樣이라는데이에딸아不平에싸힌兩面內二十五六名의從來製造業者들의엇더한對策이잇슬는지는모른다더라(春川)

엡웟靑年講演會

去月三十日午後八時에平南龍岡郡金谷面坦釜里엡웟靑年會에서黃致黨牧師를請하야傳道講演會를本敎會堂內에서開하엿는데安永極牧師의司會下에基督敎의三實이라는問題로講演을마친後에本靑年會基本金을세우기爲하야捐助를會衆에게請한結果熱誠으로義捐한人士는左와如하더라

李獻兢十五圓李鼎周安永極李典張熙善李獻豐安正燦各十圓李陽柳李謙熙朴泰興金祥鳳各五圓鄭利柳李泰熙鄭鳳來張益燮李獻赫李獻範崔致善各三圓車一信張國賢各二圓合計一百二十二圓

普明學會定期大會

慶南巨濟島延草面泉谷里普明學會에서는지난六日普明講習會館에서定期大會를열고長時間討議가잇슨後左記各項을決議하엿다더라(巨濟)

◇決議事項

一、敎員謝金支拂의件

二、貸付金收集의件

三、雜費支出의件

定州에衛生講演

平北定州郡觀舟面草庄洞에서는지난四日午後八時에當地協成學校에서郭山南山醫院醫師李永根氏를請邀하야衛生講演會를開催하엿는데傳染病의發生原因及豫防과産母에對한産前産後의注意와産兒養育等에瞭然한實驗으로一般農村婦人에게無限한覺醒을주고同十二時에閉會하엿는데聽衆은無慮數百에達하야大盛況을呈하얏다더라(郭山)

中和郡에 溫突改良實施

平安南道中和郡林業係에서는今年秋期溫突改善期를利用하야溫突改良大計劃을樹立한後本郡內改善을要하는總戶數一萬七千餘戶에對하야左記와如히爲先焚口蓋를各戶에着附케하고獎勵的으로郡森林組合에서極貧者에限하야는補助가잇다더라(中和)

戶稅等級一等으로十等外지는全部金屬製焚口蓋를使用케함
十一等으로二十等外지는木製焚口蓋를使用케함
但戶稅等級十六等으로二十等外지는森林組合에서補助가有하고飮食店에限하야는等級을勿論하고全部金屬製를使用케함에對하야一般은着着實施中이라더라

慶州印工 親睦會創立 지난四日에

慶州는그동안印刷所는여러個所이나아직그職工의機關이라고는잇지아니함으로大勢와함께步調를가티하자는意味로去四日下午八時慶州印刷所에多數職工이會合하야印刷職工親睦會를創立하얏는데그綱領은다음과갓더라

◇綱領

一、우리는우리의源能的思想을本質的으로認識하는同時에그必要한訓練을期함

一、우리는우리의自身을向上하고團結的精神을鞏固히함

◇委員

庶務部李學祚 組織部裵鳳鎬 調査部孫璞謙 敎養部許敬友 顧問崔東石 崔錫基 朴一璞

蔚山天道敎 少年少女歌劇

天道敎蔚山少年會에서는本報支局後援으로陰十六日午後八時부터蔚山靑年會館에서秋夕마지를자미스럽게보내기爲하야 少年少女歌劇大會를開催하고 方今演習에熱心中이며陰十七日은兵營靑年會主催와本報兵營分局後援으로兵營靑年會館에서公開할豫定이라더라(蔚山)

吉敦鐵道進就 松花鐵橋完工

吉敦鐵道의工事近況을들으면老爺嶺大隧道도目下東西兩口를合하야千三百米突外지進行하엿는데鐵工은約五百米突밧게안되는다하며松花江大鐵橋上에서는벌서列車의運轉을試하엿다고한다(間島)

新安州驛業績 八月末統計

京義線新安州驛에서調查한八月中一個月間統計에依하면其業績은如左하다더라(安州)

△乘客數六千九百六十二名
△降客數七千六百三十五名
△發荷噸數七千六百八十七噸
△着荷二千七十一噸

新民府 根據敎化移轉 年二回稅金徵收

數月前에根據를敦化縣으로옴긴新民府에서는近頃에이르러敦化縣內各方面에五區를定하고區域마다區長을置한後區長으로부터稅金을徵收하도록하엿다는데그配置區域과區長氏名은如左하다더라(間島)

一、頭道梁子李白南 二、大黃溝金致旭 三、四道黃溝金一普 四、五道黃溝尹佐鉉 五、威城陽金鍾烈

癸津農靑 國際靑年日紀念

黃海道癸津에잇는堂峴農村靑年會에서는無産靑年데ー이를紀念키爲하야癸津邑內公會堂에서講演會를開催하고盧義培君의司會下에演士姜喆熙君이登壇하야「靑年데ー이와朝鮮의靑年運動」이라는演題로서靑年데ー이의由來와朝鮮靑年運動의當面課業을論한後에崔炳楠君이『病的社會靑年의使命』이라는題로서熱辯을吐하자臨席하엿든警官의中止로그만下壇하고이어서『靑年運動의過去와現在』라는論題로柳秉哲君의講演으로會는無事히마치엇다더라(癸津)

怪常한『상투김매기』暴行 被害者는告訴提起

全南靈光郡南面東酒里洞民들이所謂『상투김매기』決議란條件으로因病不參한鄭東萬(一名鄭德用)에게現時代에는듯도보지도못한惡行을恣하엿다함은本紙에旣報한바어니와그後被害者鄭東萬은金鍾鉉 金鍾鳳 金鍾大 朴夏基等首魁者들을걸어該面警察官駐在所에告訴를提起하엿든바이消息을들은首魁者들은조곰도改悛하는마음으로謹愼의態度는업고돌이어被害者鄭東萬을向하야『우리는兩班이오財産家인故로法官들도엇지할수업슬뿐아니라더욱이本署某警部와는親密한터인즉告訴는實效가업시될것이며檢事局으로간다하드라도辯護士가만히잇스니아모거릴것이업노라하며바로告訴를取下하지안흐면結局에는三個月徵役은하고말리라』는暴言으로威脅하엿스나鄭

地方運動

◇蔚山脚戲一束＝慶南蔚山郡內各地에서는陰秋夕名節에脚戲大會가盛況으로開催될터이라는데大概一等으로부터五等外지는賞品을授與할터인바一二等은牛一頭式懸賞한곳이만흔데第一兵營靑年會主催와本報兵營分局後援의第四回南鮮脚戲大會를爲始하야農所面虎溪에서와大峴玉長生浦、溫山面牧島里、溫陽面南倉里西生面等各靑年團及地方有志의主催로서凡六處에서開催되다더라(蔚山)

◇延安庭球遠征＝黃海道延安庭球團에서는지난四日에海州로庭球遠征을가랴하엿스나事情에依하야來十一日로延期하엿다는데一般有志諸氏는만흔應援이잇기를바란다더라(延安)

◇早大蹴球延期＝旣報早大蹴球團對平壤戊午、崇實大決戰은早大蹴球團의事情으로因하야來十四、十五兩日로延期하얏다고(平壤)

◇知世浦脚戲會＝慶南巨濟島知世浦靑年會에서는오는秋夕佳節을期하야陰八月十六日부터三日間同里沙場에서全巨濟脚戲大會를연다는데그賞品은알에와갓다더라

一等 農牛 一頭
二等 中牛 一頭
三等 物品 若干

地方集會

◇全巨濟脚戲會＝慶南巨濟島二運面長承浦에서는有志金進培李同柱外數氏의發起로오는秋夕佳節을期하야陰十六日부터三日間同里沙場에서全巨濟脚戲大會를연다는데그賞品은알에와갓다고(巨濟)

一等 農牛 一頭
二等 白木 二匹
三等 白木 一匹

◇劉氏送別會開催＝黃海道安岳에서音樂家로名聲이藉藉한劉世華氏는今般平北定州五山高普校敎員으로被任되어지난一日에出發하엿다는데本邑靑年團主催로지난卅一日에本邑金元亮氏家에서送別會가잇섯다고(安岳)

◇龜城少年創立十週年紀念＝來十一日은平北龜城邑內에잇는龜城少年會의創立一週年紀念日임으로十餘日前부터會員全部가同會館인天道敎堂에모히어여러가지準備로매우紛忙하다는데當日午後一時에紀念式을지내고場內에會員各自의手工品陳列과探覽抽籤과市內에會員一同의旗行列等을하고밤에는『둘탈어내뭇는大會』를開한다고(龜城)

地方人事

▲金壽鳳氏(江原普校訓導)病氣療養中去六日午後十一時中町自宅에서別世

淸秋音樂童話大會

◇時日 九月十二日午后八時
◇場所 金陵靑年會講堂
◇主催 朝鮮日報金泉支局
◇後援 金泉少年會

廣州、高陽、始興、楊州 四郡聯合個人庭球會

◇時日 十月一日
◇申請期日 九月二十五日
◇申請場所 松坡公普校
◇參加金 每組一圓
◇規則 普通用(雨天順延)
◇主催 松坡體育獎勵會
◇後援 朝鮮日報松坡支局

地方漫筆 嶺美學院維持를보고 一記者

◇嶺美支局

現今交通이便利케됨을딸아우리嶺美도 自然의趨勢로戶數五百餘戶를算하게되엇다！그런데 一大遺憾인것은 敎育機關이업는 것이다 現在日本人은二十四戶로高等小學校를設置하야 前進하는이때에 우리로는五百餘戶로조고마한學院一個所를維持키는難하야 허매이는것을볼때에 嶺美에도 果然사람이잇는냐하는생각이업지아니하다 적어도平安北道의 南部의一都市로서그야말로 적지안흔羞恥라아니할수업다

◇嶺美學院이經營困難으로因하야 閉院狀態에至하엿다함은 이미本紙에報道하엿거니와 嶺美사람으로하여곰 어느누구를勿論하고 痛歎의淚를禁치못하게된것은 事實이엇다！그러나同學院을爲하야 先發的救濟策을講究하는사람은 그누구이며그에對한 積極的으로後援하는사람은그누구이엿는냐한사람도업다하여도過言이아니며事實이證明하는바이다 同學院은一時敎員의 俸給外지支出치못하고더욱慘憺한處地에잇섯슴을 그리하야 그들로부터嶺美學院維持를講究키爲하야 市民大會外지發起하고日字와趣旨書를미리부터 全市에配布하야宣傳하엿스나大會當日에는 不過五六人으로그만流會를宣言함에發起者들로서는 別般效果는姑捨하고 돌이어섭섭한생각을늣기는同時에 嶺美靑年會에서는 그에對한方策을講究키爲하야 緊急臨時總會를召集하여가지고 長時間討議가잇슨後同學院을維持키爲하야 各其每月出捐하기로可決하엿스나그의家勢에依하야 會員亦小額에不過함으로 同會員들은 다시維持方針을硏究한結果會員中으로서 實業商을하야多少의利益으로 維持費에補充하고其外不足額은社會有志의同情金으로 維持하여가기로決定되어諸氏의熱誠下에方今着着進行하게된은 누구나稱頌치아니리업다 一般社會로더블어積極的으로 贊成을마지안는다

◇이世界에서 個人이나團體를勿論하고其時代의 精神에順應하는者면 優者요社會의進運에背馳하는者면劣者다 嶺美에잇서아즉까지固陋한積習이조금이라도現時代의思潮를體察하고大衆의 福利를爲하야 共同의活路를求하려할길을 내뭇는날에도 榮華의曙光이빗칠것이다 이로부터는우리嶺美! 우리도남과가티 살자면배워야하겟다는 意識下에敎育의急務인것은筆者로부터다시皷吹할必要도업스리만치우리가周知하는바라 一時一刻間이라도 不可缺할機關이니 嶺美富豪或은有志諸君들은 또한嶺美市民의一分子로서速히賢明한覺悟가잇기를 바라고一言을告하노라

四十餘名被檢束

露領朝鮮人 兵役義務로
농사를지어먹게하고 토디를나이어주어서

최근에 극동로령방면으로부터 오는소식통은대개이러하다연해주방면심으로극동 디방의로령에 이주하는조선인의호구는날로증가하야모다논루는사업에 종사하는 모양인데 로농정부에서 이이주민에대하야 귀화시킬정책으로 새로운법령을발표하야귀화된자에게는토디 밭전평을대여(貸與)하야 로국민의권리를부여하는동시에일년팔개월의 병역에복종하게 한다더라(간도)

馬賊과赤軍衝突
마적두명은총에마저죽엇다

중국동녕현로흑산에근거를둔마적두령진동산은로령디방에서야면을탐하려다가로령으로침범하는순에부하삼십여명을로령디방에파견하얏는데 그일행은 지난달구일경에 추풍뎡부근 대뎐자(秋豐附近大田子)를습격하고 김료근(金寮根)외다섯명에게서 아편다섯관과 현금이백여 불을 강탈하여가지고 로중국경(露中國境)으로 다라나든중에류수하자(柳樹河子)에서 적군기병(赤軍騎兵)과 충돌되어교전한결과 약삼십분만에 마적두명이 죽고 중상으로 퇴각하엿다더라(간도)

시삼십사분렬차로대구(大邱)에 도착하얏다더라(대구)

永新小學校 依然不安
이전과가티 계속뎍보조를취한다고

광명회(光明會)에서경영하는룡정시내에잇는영신소학교(永新小學校) 륙년생전부는동교오학년담임교원 김모에게 대한몃가지과실을 들어지난달 이십구일에배척운동리유서(排斥運動理由書)를학교당국에데출하고 니어서퇴교한후 전연등교치 안홈으로학교당국에서는할수업시 지난일일 맹휴생(盟休生) 전부를소집하야만흔량해와설유를한후전긔맹휴생 일동은 그날부터 다시등교하엿다는데이제리면으로자세한탐을들어보면생도들은 학교당국에서 퇴학을 명한다는 바람에할수업시 그럭저럭 등학은하나마안으로 배척운동은 더욱 맹렬하야 젼과가티 계속뎍보조를취하는모양이라더라(간도)

益山新幹支會 『쎄라』事件言渡
일년반과일년

익산신간지회(益山新幹支會)의 『쎄라』사건으로인하여 림혁근(林赫根)은징역일년륙개월(懲役一年六個月) 배헌 림영택(裵憲 林榮澤) 두명은징역일년(懲役一年) 의언도를밧고즉시공소(控訴)한결과지난 구일 오후세

牧島附近一帶 水上生活禁止
백여어민을륙디로몰어내어 일뎡한주소를가지게하고저

부산목도(釜山牧島)를 근거로 부근바다를생명삼어주야로어업(漁業)에종사하야 일가족(一家族)이사라가는어부(漁父)가 근수백명에 달한다는데 금번관계관텽으로부터 그들의 수상생활(水上生活)을 철폐(撤廢)시키고 륙디(陸地)로올어내어 일뎡한주소를 가지게하고저 부산부(釜山府)로부터 일케히 퇴거명령(退去命令)을 발하얏다는데 오랜동안의 생활근거디를 이가티 퇴거당하게되어 지난륙일에 부산부에 진정(陳情)까지하얏다는데 도저히 퇴거할수업다고하야 구월말일까지 기다려는주겟다하얏다는바 다수의 수상어민들은 생활의 곤경을면치못하게되어 의론이분분한 모양이라하며 이가티처치한리유는 그들의 정태가 불분명한 자도혹잇스며 해상의위생과기타 사변으로인함인듯하다더라(목도)

창동 김석화(平南德川郡太極面永昌洞金碩化)(三二)와역시 그동리에사는김삼복(金三福)(二一)의 두명은 요사이 시국이소란한것을 긔회로 지난팔월칠일오후구시에 녕변군녕변면우현동 주소사(寧邊郡寧邊面牛峴洞朱召史)(七二)의집에 들어가서 자긔네는〇〇단이니 군자금을 데공하라고곤봉을가지고위협하야현금일백십구원팔십전을빼아서갓스며또팔월이십일일에 역시 그집에가서 사원오십전을 빼아서간 사실로 경찰에 데포되어 수일전신의주검사국으로호송되엇다더라(신의주)

◇八月讀書子萬七千人
冊數로도萬七千、昨年倍增

팔월중 조선총독부도서관(朝鮮總督府圖書館)의상황은 개관한지삼십일일간 도서관람인원(閱覽人員)은

有料 六、四三五 無料 一〇、七九六
合計 一七、二三一人 △一日平均 五五六人

으로도서수(圖書數)는 一七、五三〇 一日平均冊數五六五冊 인바전년동긔에비하면인원으로는 구천이백팔십팔인관람도서수로는팔천구십삼책이증가되엇다더라

甕津青年데이 演士二名檢束
각처에가택수색

이번에국제청년(國際靑年)『데이』를의미잇게 마지하기 위하야 옹진농촌 청년회(甕津農村靑年會)에서 긔념강연을하엿다함은이미 보도한바이어니와당일의연사최형식(崔衡植)군의강연이불온하다는 구실로 중지를 시키는동시에 즉시경찰서로 다려다가설유를마친후시말서(始末書)와지바든후에돌려보낸든바그다우뉴날인 오일에뭄연히최군의 가택을수색하는 동시에 또다시 검속취됴를 한다는바 리유는 아모것도 업는모양이라하며 그다음휴일아침에는 사복순사네명을 두머로 나노아정련『데이』긔념강연의 연사이엇든 본보지국원이듀병철(劉秉哲)강현희(姜鉉熙)량씨의가택과신간회옹진지회(新幹會甕津支會)간부인리경호(李京鎬)군의가택을 수색한후 리경호군까지 검속하얏다더라

假軍資員 平壤署에被捉
즉시검사국으로

원적 평안남도평원군 백곡면명

國際親善使者 米國人形歡迎會
구월십일에춘천공보교에서

얼마전에미국(米國)으로부터국제의친선(國際의親善)을목뎍한 세계아동친선회(世界兒童親善會)가조직되어동회에서금춘에 국제아동친선을 도모하는 사자(使者)가될만한다수한인형(人形)을만들어멀리태평양을건너 일본으로 보낸그중에서 다시그것이조선으로 건너와서 얼마전에 강원도에도 여덟개의인형이 분배되엇다는바 그인형의 환영회를 십일강원도 교육협회주최로 춘천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할터이라는데 당일에는 춘천읍내각학교 륙백여아동들이 회합할터이라더라

事前發覺된 惡地主의奸計
작인은대항준비

한발(旱魃)수란(水亂)의재앙을 거듭하야 일반농작물이 익으라는가을이되어 농촌 형태들의질거운때는 박두하엿건마는 경북안동군(安東郡)농촌일대의농민들은 아즉도 수운에차이엇는데 악디주들은 금년의 곡가가거년에비하면 지천케되어 수입이태반부족될것을 예상하고간계(奸計)를내어어보충을 소작인들에게할작정으로 계획하는터 이라는데 들은바에의하면 군내모모 우수한 부호들은 추분이멀지아니하엿슴으로 답을 할혀예안군내지이할을 증수하고자 사음(舍音)을새고 비밀히 타합을 한다는 풍설이잇슴으로 일반 소작인(小作人)들은이에대하야 대책을 강구하는터인데 만약전에업는 도조를 증수코자할통시에는 결단코 응치아니할터이요 결속을하야 맹렬히 반항(抗爭) 할터이라고한다 더라(안동)

春川少年軍 入隊式
금월중순에거행

요지음 춘천(春川)샛별 소년회(少年會)김영일(金英一)군이경성에와서 조선소년군본부(朝鮮少年軍本部) 와교섭한결과데신률호대의 명칭을 어더가지고나려와서 이래대원모집과 기타에 활동을 계속한결과 본월중순경을긔하야 입대식(入隊式)을 거행할터이라는바 입대식에는 경성총본부부사령관(副司令官)인 건백(全栢)군이래참할터임으로 소년군이 춘천에서 처음인만치 자못성황을 예긔하고 잇다는데 일반은만흔기대를가지고입대식을고대한다더라(춘천)

事實)의 장남경진(長男慶鎭)(一二)을쳐서중상을 시키엇슴으로 즉시 대구로 들어와병원에입원 시켜방금치료중이라더라(대구)

穩城溺死體 三個發見
한사람은아즉도발견못

지난달 스무날류은 정남산 도선장(南山渡船場)에서배가뒤집혀되어 승객네명이 빠저죽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수천자(水泉子) 일본경찰서에서는 온성경찰서와 련락하야 시톄수사에 로력하여오던바 수일전에 세명의시톄를 발견하야 유족에게인도하엿다는데 황룡문(黃龍文) 박명신(朴明信)황셩녀(黃姓女) 세사람의 시톄로 알게되고아즉 한사람의시톄는 찾지 못하엿다더라(간도)

出嫁한딸을 父母는또求婚
딸은부모를책망

철원군갈말면지포리(鐵原郡葛末面芝浦里) 문공엽는자긔장녀 립분(三)을동리에사는 신순여(申順汝)의장남길동(吉童)(一九)파약혼한후 밋며느리로 신순여가다려다가 오년간이나 길러오던중립분의나히장년에달하게되매립분의부모는 사복을채 우라는아심이잇섯던지 자긔집에 다나러온립분을보고 다른곳 으로 혼처를구한다하며일변각방면으로구혼을 함으로이것을 본립분은분함을참지못하야자긔부모들책망한후곳 길동의집으로 돌아가서사유를 말한후곳 혼례식을 거행하얏다는데 일반은 립분에대하야칭송한다더라

警察權가진 牙山郡廳員
노는아이를구타중상

아산군에 근무하는 군속(郡屬) 박병헌(朴炳憲)은 동리아동의 유희를 자긔마음대로 금지하고 또는 구타도한다는바 지난칠일 오후팔시경에 동리아이들이 하청일(河淸一)씨의 집압헤서 유희를할때에 통행 방해라는구실로 무리히구타후은 구추하엿슴으로 아동은 경검(警檢)하야자연혜여집에 유희도 하지아니한 방성삼(方成三)의아들 방모(方某)가잇슴을보고 달려들어무수탄타하고 옷을모도 찌젓슴으로 전긔 하청일씨가 이를질문한즉 도로(道路)규측상취체권리가잇다고 대답을하엿다하며 전긔구타당한방모는 중태(重態)가 되어누엇슴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고소를데기힐터이라더라(아산)

延海水組걸어 損害請求訴?
地主小作人結束으로 염수로농작물이망햇다고

문데의 연해수리조합(延海水利組合)에서연백군룡도면 발산현암현일대에염분(鹽分)이포함(包含)된물을관개하야 농작물(農作物)의뜻아니한해(被害)를입은 일반디주와 소작인들이결속하야 수조(水組) 당국파 절충(折衝)중 이라함은이미보도 한바어니와 조합당국자는 아즉까지도의 연이무책임한답변으로 우물주물 하고책임을회피하야 문데를 유야무야중에매장하려함으로피해자측에서는분개하기를 마지 아니하야 방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긔하려고수속중이라더라(연태)

東海社自働車傷人

지난칠일 오후 세시반경에경북 동해산업주식회사(慶北東海産業株式會社) 자동차경북데삼호(第三號)를운뎐하야영천(永川)으로부터대구(大邱)를향하야오다가 달성군 동촌(達城郡東村) 도로에서 달성군해안면 검사동 박로실(達城郡解顔面檢沙洞 朴

朝鮮人과日本人 料亭에서作黨亂鬪
조선인한명은중상

지난오일밤 열한시경에 황해도 옹진읍내(黃海道甕津邑內)에잇는 일본인료리집 앵정(櫻亭)에서 일본인오륙명이 술을지어가지고 조선인두명을 묵거노코함부로구타하야 한참동안은 큰소동을 일우엇다는데 이제그사실을들은즉 본적충청남도 론산군강경면북뎡 십삼번디(忠南論山郡江景面北町) 현재도곡마단(都曲馬團)의단원으로흥행하려이곳까지왓든 최화봉(崔花奉)(二六)외사오인의 단원들이읍내모주뎜에서술을먹다가각각주인집으로돌아가든중전긔앵정이라는료리집에서다시술을먹고저하야료리집주인은엇더한 관계로술을팔지못하겟다고미안하다는말을하게되자 술이취한 칠평(七平)이라는사람이조치못한 말을하야 말청이되든중 전긔최화봉은 만큼들하야 주인집으로 돌아가려하는중 읍내온천리(溫泉里)에거주하는 산하수일(山下壽一)이라는일본인이와서 앵정에잇는 사람들과 협력하야가지고 바로전긔 최화봉을묵거노코 되는대로란타하야 두부(頭部)로부터척주、요부및오른대퇴(脊柱腰部及右大腿)에이르기까지 중상이될뿐아니라 전신은 매마진자리로인하야 검북게되어 삼주일이상치료를 요할만한중상이되여 방금읍내 온천의원에서 치료중이라하며 가해측에서도산하수일(山下壽一)외이인이약일주간 치료를바들 상처를내이엇스나 중상은 아니라는데 이에대하야 일반은 극도로 분개하는동시에 더구나 산하수일의행동을 이상이보아 문톄의 해결이 장차엇지될는지 일반인사는 주목중이라더라(옹진)

頻發强窃盜로 騷亂한水原
附近一帶人心洶洶 경찰은필사뎍으로대활동

수원(水原)에는월여동안에정거장(停車場)디머를 중심으로 긔보한바의단도강도사건외에삼차의 강절도사건이 속발하야인심이흉흉하던중 지난팔일 새벽네시경에 수원의중심디인 성외산루리(城外山樓里)화상 문성태(華商文成泰)의집에절도두명이 침입하야 마춤돈은 업섯슴으로 옥당목(玉唐木)두필가격이십여원어치만 훔처갓다는바 당시에 가 놀라깨엿슴에 불구하고대담히 범행을한것을보면 보통의절도가아님이 확실하다하며 또한 수일전에는안룡면(安龍面)방선에서 소주병(燒酒甁)으로 위협을하고 금품을 강탈한강도사건도잇서 수원(水原)은 도적의련하가트며 수원서(水原署)에서는 범인수색에 필사뎍활동을계속한다더라(수원)

米穀商을들어먹어
전달浮浪者一團 그리고무뎌기싸움을하엿다

지난륙일(음력팔월 십일일)고성장날 커녀에경남고성군 읍내(慶南固城邑內)옥뎡려관(玉井旅館)에서는 예차홍이 일어나서큰야단법석이 잇섯는데 그자세한원인을 듯건대 통영조일뎡(統營朝日町)에사는 장찬숙(張燦淑)이라는사람은돈을엇고자수월전부터 고성전긔 려관에 투숙하면서고성권번(固城券番)엇더한기생과 관계를두고 잇스며또장찬숙의 일을보아주 기위하야 와서잇다는 동영조일뎡김수겸(金守秉)이라는사람도역시 관계를맷고잇스면서운동하는돈은여의하게잘되지도아니하고그동안소비된돈 수백원은 각처에서 독촉이성화가트나 갑흘길이업서 고민하고잇든중 지난음력팔월륙일에 고성읍내김모(金某) 와안정(安靜)리병긔(李秉琪) 김수겸(金守秉)은미곡중개인(米穀仲介人)강시언(姜時彦)에게와서 백미(白米)일천 일백칠십오승을 되이엇더니 돈은내일준다고함으로 그러케할수 업다고거절한즉 그리면 구모(具某)라는사람이 돈을가질려 갓스니 기다리라고 함으로그들 밋고잇섯더니 조곰잇다 가구모가와서자긔가담당할것이니 백미를주라고함으로의심업시 준후 전긔김수겸등은 그쌀을그날저녁 부러 자긔네들돈 갑흘곳에 내여주고 소비하고말엇다더라

◇醉漢老母毆打 안성군양성면덕봉리(安城郡陽城面德峰里) 오화영(吳和泳)(三二)은 본시품행이불량한가산을 술로써 패가를한터인데 지난 칠일 오후네시경에 또한술이취하야 자긔안해와 또는륙십이넘은 자긔모친外지 구타하엿슴으로 그곳인사는 이에대하야 크게 분개한다고

◇阿片쟁이淸潔 지난사일오전여덟시에수원서원(水原署員) 세명은 수원아편중독자 소굴인 성외산루리(城外山樓里)리성근(李聖根)의집을포위하야주인외 사오명의 중독자를 검거하고계속하야 각처로 수배(手配)를돌려속속검거중이라고(수원)

다릴사위가 丈母를毆打
안해는리혼소송

평남강서군 증산면 리안리방긔진의딸방씨(平南江西郡甑山面利安里方基鎬長女方氏)(三一)는

오라한즉 전긔방씨는 내게는돈 한푼업스니 당신돈이잇스면 얼마간돌리라고 하얏던바 자긔더러 돈달랫다는 것으로 한참동안언쟁을하다가 어디갈터이니 의복을내여달라한즉 숫이업서 의복을내리지못하엿스니숫을사서달라고한즉 아츰에업던돈이 인제 무슨돈이 잇겟느냐하면서 남편에우가이러케 핍박하니 무슨 마음놓은년이라하며심쓰테 눈우에삼주일치료를요할 큰상해를입켜주고도하로종일욕설을하며 포학한행동을 하던바 커녀에 그장모가들어와서 이모양을보고왜싸웟느냐하며몸을 축장인결은장모에게너도가티 려죽일년이라고꼭뵈한결과삼주일치료를요하게타박상을당케하얏슴으로 자긔가여것 자긔자식커럽조곰도 륜리업시 사랑하여살림을시켜주던사위가뜻밧게 이런포학한 행동을 하얏슴으로 전긔방씨는그와가티 소송을 데기한것이라더라

(이천)

全家族總擧로 姙娠中子婦를打殺
시동생과시어미가달려들어 加害者全部檢束

성주군 선남면 도성동(星州郡船南面道成洞) 리분임(李粉任)(二五)이란자는 임신사개월 임도 불구하고 지난 팔일오후네시경에자긔남편의 동생박로면(朴魯淵)과그의동생과시어머니가 달려들어 합부로 때려죽이엇는데 이급보를들은 소관 성주서(星州署)에서는 즉시현장에출장하야전긔가해자세명을 동서로 인치하고방금엄중히취됴중인바원인은 목하됴사중이라더라

靈光殺人事件은 窃盜의所爲
진범인데포

지난팔월이십팔일전남령광군염산면(全南靈光郡鹽山面)김흥섭(金興燮)씨의외가 어머를 나간틈에 집직히는어린아이 대용(大用)(三)이를엇더한악한이 목을 매여죽인 살인사건이 돌발하자 당디경찰서에서는 범인 데포에 로력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후협의자로 동리박규섭(朴奎燮)(二〇)을인치하여엄중취됴한바 진범인으로 판명하엿다는데 이제가해자의 자백에의하면 그전날 김홍섭이가함평(咸平)동디에가서첫닭을밥아현금 륙원을 가지고온줄을알고 이것을도적질하고자긔회를엿보다가 마춤김홍섭내외가바다가에나갓던틈을알고 바로 들어가서의복상자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는판에 대용이가뒷마당으로 부터들어옴으로 일이 발각될것을아라차리고 후환을업시함에는 커머용이를죽이는것이올타는생각으로 목을졸라죽여 오줌통의에잡어너흔것이라더라(령광)

第三回中等學校野球리그戰
九月下旬擧行 ◇主催 朝鮮日報社

運動競技

慶熙 7 全龍中 1

一勝一敗의慶熙對全龍中決勝戰은九日午後四時二十分角谷(球)坂井(壘)으로開戰六時二十分閉戰京城球場七對一로慶熙優勝

慶熙(先)			全龍中
7 鈴木	36 打數 29		3 中村
8 日置	6 安打 5		4 山田
6 岩城	1 犧打 1		6 大根
2 三輪	6 三振 4		8 小西
9 淺原	7 四死 3		1 永田
4 士谷	3 盜壘 1		9 淵上
5 松村	0 失策 7		2 岡本
1 高橋	1 二打 0		5 長瀨
3 橫山	8 殘壘 4		7 竹村

得點 慶熙 0 1 0 0 2 1 0 0 3=7
得點 全龍 0 0 0 0 0 0 1 0 0=1

테니스庭球決勝戰 米國對佛國

테비스컵庭球決勝戰인米國對佛國의케아럴지라운드는八日부터當地콜겐트俱樂部에서開始된結果一勝一敗로존스톤氏는라고스트氏에게敗되고칠덴氏는코세氏에게敗한바『스코어』는如下

라고스트 {6—3 6—2 6—2} 존스톤
칠덴 {6—4 2—6 6—2 8—6} 코세

YMCA拳鬪部募集

觀報=中央基督教青年會拳鬪部에서는萎靡不振한스폿스界에異彩를發揮하고저널니部員을募集한다는데同部의開學日字는來十三日로定員는三十名으로運動家諸氏此機를失치말고만히至急入部하야주기를바란다더라

少年庭球大會 朝鮮新聞社第二回朝鮮少年庭球大會는十一日에善隣商業『코-트』에서擧行한다더라

實業庭球延期 京城運動具商會主催第八回全鮮實業庭球大會는廿四日에開催코저하얏든바不得已한事情으로延期되얏더라

今日의運動

△朝鮮體協主催=全福岡對殖銀野球戰은午後四時龍山球場
△衆二派三菱對鐵道局野球戰은午後一時龍山球場에서

僧房悲曲 [108]
獨鵑 作 夕影 畫

禁無斷 撮影興行

애별(哀別) (二)

『아아 은숙아너는역시나의동생이엇다한어머니가나어주신피가튼동생이엇다 우리는 장차엇더케하여야할것이냐?』

영일의 말소리는 칠통하고도서글피울렷다

이말에도 아모대답도안코 다시 고개를 들이우는 은숙의어깨는 새로운 울음에 떨렷다 영일은그대로말을계속하엿다

『은숙아 은숙아 이십륙년전에강보에싸서어두운새벽쓸쓸한 절마당에나를내버리고가섯다는 어머니는이제나를좀더볼고쓸쓸한세상에 내버리고 길히떠나시는구나…… 은숙아 그뻐에내여버린고아(孤兒)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행복의고아엿다 그러나지금의이크다란고아인나로서는돌아갈곳이어데냐……?』

『옵바 옵바! 커는 갈터이얘요 어머니를딸아갈터이얘요』

은숙은 두손을영일의압헤버어노코 방바닥에 쓸어지드시업되엇다

『은숙아 모든것은 운명이다 원인이 맺커주는 결과이다

운명은결코 커주할것이 아니다 인과(因果)의 필연성(必然性)을똑바루비취우는거울일것뿐이다

그러타 온세상사람들은 이거울압헤서서 자긔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웃고울고 하는것이다 그래서죽는것 이라든지 사는것이라든지 모두가 결국은 ……』

영일은 이애닯은 현실압헤서넘우도약하여진 자긔를 발견하엿다 그리고모든것을 운명에맛기려는 자긔의생각이 스스로퍽도 스스러웟다

은숙은 거긔대하여도 다시아모린 대스구도업다 쓸쓸한침묵은 다시온방안을 싸고돌앗다

지나치는 그림자와도가티 몰우에서지는 거품과도가티 스러지는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이란죽엄의 련속일것이다 단일업는장식(葬式) 일것이다

느즌가을 지는안개를 짓밟고나오는 아츰의태양이 밝달리고수레를몰며 개즘생이 다름질치는 웃고고함치고 속살거리는 인생의거리를 비정거리는듯 웃고내려다보는 아츰이다

황토현 네거리로 한채의상여가 수만흔발에 옹쿡이여 성큼성큼 다라나고잇다

은숙어머니의 장례

상여뒤에는 사랑하는딸 죽엄의테불러서인아들 은숙과 영일이가 딸으고잇다

느즌가을에잡긴리태원일뎨는그야말로 무덤처럼도 쓸쓸하엿다 압흐로는 푸른게흐르는 한강이 나려다 보이고 뒤로는이쒸쒸인고총(古塚)가튼남산이돌아보이는 놉다란위치에 흉넘새새로운무덤 한개가늘엇다

은숙어머니의 무덤

호상객이며 상여군도 다돌려보내고 영일과은숙은 어머니의무덤압헤나란히 안젓다

영일은 떠날길에 밧븐사람처럼 초조한마음을 억타안치기 위하여 한참한울만 처다보고말이업섯다

은숙이도 말업시안젓다 영일은 모든것을 결심한드시 입을열엇다

『은숙아 자-이제는우리는엇던길을 걸어야올흘것이냐』

『옵바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딸아가요 저는 이세상이실혀젓서요』

이때의은숙은 이상하게도 침착해보엿다

『아니다 은숙아 나는 삶에매한 애착이라기보다 아모런필요를 늣기지안는동시에 죽엄에대한 필요도 늣기지안는다

죽고사는 모든것이 자연일것이다 그래서 나는너의동의에꼿찬청하지안켓다 내가 살수잇는날까지는 살련다 살비에는굿세게 살아보련다 그러나내가굿세기뻐문에 사는것인지 약하기뻐문에 못죽는것인지 그것은나도 모르고 남도모르는일이다 살기위하여 애를쓰는것이 어리석다면 죽기위하여 조급한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너도살아다오 눈을이다쥭는날까지는살아달라는 말이다 그러면너와나는 오는날을 엇더케살아가야할것이냐 이것이남은 문뎨이다 나는이순간까지 그것을생각하기에 골몰하엿다 그리하야나는 한가지해답을 어덧다

그것은 리별이다 죽기보도애틋한리별이다

오누이로 판명이되엇스니 오누이로잡혹을하고 일생을 사라가야올타고도하리라 그러나그것은 도학자의상식이다 나는도학자의 상식으로 교훈못할 무엇이나의 가슴에 숨어잇슴을 깨닷는다자 은숙아 밀어스자 그리하야너는 이길로 나는 저길로피차에떠나자 떠난뒤에는 무슨일이잇든지 서로맛나지안키로 굿게 약속하자 너는행여나 쓸쓸한인생을몰로걸어가는나의 자최를 뭇지말아다고 찻지말아다고 사람사는 거리에 가다오다 혹시맛난대도 너는나를 아는톄말아다구 자ㅣ 나는간다……』

영일은은숙에게 가벼운악수를 남기고 돌아서섯다

『아-옵바!』

은숙은 영일의 옷소매를붓잡고 울듯한표정으로붙러다그러나할말은 얼른나오지안헛다

『가는나를 붓잡지말어다구이 소매를노아다구』

영일은 쓸쓸한표정으로 은숙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소매를뗄치고 서서히 발길을옴겨노앗다

은숙은 이제는 가는영일을붓잡을용긔도 소리처불를 생각도나지안헛다 그저얼빠진 사람모양으로 한검음두검음 멀어지는영일의 뒷모양을바라보고 서잇슬뿐이엇다

은숙은 멀어지는 영일의뒷모양을 더한층흐리여버리는 소리업시 고이는두눈의눈물을 손수건으로씻고 좀더분명이 보려할때에는 영일의검다란 그림자가석양이빗긴 언덕길 모퉁이로조고마케 사라저버렷다

은숙은 갑작이 앞히캄캄하여지고 발뜻치어지러워첫다 두손바닥으로 얼골을가리고 무덤압헤 쓸어졋다

그날도 그윽히 저물엇다 인생이라는 비극의 한장면을덥는검은 막을일고……(끗)

변변치못한 이니야기는 오늘로웃을맛습니다 붓을못는 인사로 독자여러분의 행복을빕니다

僧房悲曲을끗맛는날에— 作者

◇懸賞發表◇

일즉이 본지에모집한 승방비곡『僧房悲曲』의주인공최영일과 김은숙의관계는 엇더케되여쏫이나겟느냐? 한 현상은응모수 실로사천오백 칠십여장에달하는성황을일우엇다 그중에서 주인공의모친이 가트러라는 답안을 내인이는리재옥(李在玉)씨의 그것 한장뿐이엇다 그래서 이것을정해자로무첨당선으로 하고 그밧게 무친이갓다거나 또는막연히남매간또는 혈족관계로 써부부가되지 못하리라는 답안사십사장은 미리뎡한 규정대로엄정한 추첨을하여 그중에서두사람을뽑은바이다

當選者芳名住所
一 李在玉 京城鍾路二丁目五六
二 朴正穆 京城中央高普
三 趙泰洙 忠南江景黃金町三一

九月十日特別封切 階上 大人一圓 小人五十錢 階下 大人六十錢 小人四十錢

一 巨篇 有史以來驚倒的大作 ◆獨逸우파社超特級映畫 名匠에아쭈본氏監督作品
曲藝團 十卷
에밀야닝스氏 리아드푸티氏 主演

◆유나이트에틔스트社特作品 헨리킹氏監督作品
너하고는空中에도 七卷
또시시토니氏알넥산더카氏리안에리오트氏 포레스트氏共演

◆유社쭈엘特作映畫◆ 호스피터스氏快演品
嵐의捕虜 全七卷

●特別豫告
朝鮮名畫第二篇 假名 落花流水 全九卷
八日撮映完了近日特別封切

洛陽의길 全六卷
無情 全十二卷
영화의三幅對 全八卷
예니성디리
사랑은盜賊變裝自在 全八卷
스테라따라스 十一卷
우리들의바다 十卷
赤字 八卷
第一曲馬團 九卷
원다미아夫人의부채 九卷
慶奴의날개 八卷
荒 十四等 官 八卷
나의사랑하든女性 八卷

映 폭스쭈社 團成社 光電九五九番

九月六日부터上映
萬人에우숨과人氣를끄을大며스트내순날社超特作大映畫喜劇界新星하리、랑그동氏、主演
爆笑映 初陣하리 全七卷
天下騷動의大笑殺篇!!初陣하리가나왓슴니다
戰慄ㅣ恐怖中에는우숨의藝術이넘치는大映畫!!

大連續大活劇 呪咀의家 四篇八篇上映
十三篇 잃어버린敵 十四篇 地下會處 十五篇 僞의信號 十六篇 毒藥甁
보면볼사록奇怪한問題中에드리가는奇畫!!
폭스、코매듸
시드스미스氏主演 마누라가第一이다 全二卷
市內 優美館 電光三九五

◇九月十日(秋夕날)부터三日間
全鮮男女名唱大會
仲秋佳節을機會삼아白衣人의半萬年歷史가產出한鄕土藝術의精華인우리의歌舞는果然엇더할는지!

◇出演
一、春香歌
一、沈淸歌
一、朴打鈴
一、短歌
一、其他雜歌

◇出演
李東伯 宋萬甲 姜小春
金秋月 金綠珠 趙錦詠
其他多數名唱

‖豫告‖
大學싹라운은
今秋映畫戰에連戰連勝한萬古不朽의雄篇이매또다시關東地方에서再次延期됨을따라不得已來十三日부터기역코上映하겟슴니다 乞期待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〇五〇

米價低廉으로 財界恢復은無疑
―그條件의具備로보아 今後는恢復될생이잇다―

米價低廉에對하야는財界各方面에서相當히憂慮되는바今年米價低의結果는一般物價의低落과相俟되어勞働者의生活을安定시키고自然勞銀이低下되고金利低와相俟하야一般生活費를低케하고다시輸出貿易을有利하게하는結果로되고一面一般財界는今春金融界의動搖에依하야그底를打하고지금그의整理中에잇다即오래동안沈滯不況을繼續한財界로米價低에依하야財界回復의條件을具備한것으로今後에는放資上危險率이減히적고또는지금이放資의時期인지는알수업다今日의狀態로進行되고보면財界는今後直時回復될것이라고樂觀되는意嚮이不尠하다더라

組銀答申案
不遠各銀에配附乎

金融調查準備委員會에對한京城組合銀行의答申案은今明日中에各銀行에配附하게되엿는데그內容은既報와갓이日本改正銀行條令四十五條中必要條項約二十條의激條緩雜로된것으로改正理由도매우詳細에附記하야잇는模樣인바答申案以外의事項으로서는行政上問題即支拂準備行制等事項即實際的金融關係의本理的協調、貯蓄銀行條令을朝鮮에도發布하야適當한時期에實施한다는二方面에亘하야此도二三日中에成案을得함으로十日以內에臨時總會를開하게되겟는데過般協議會에서大體意見의一致를보앗스나總會는一回로未濟하겟다더라

總會에서決定될 貯蓄銀行條令과
贊否兩便意見不一

京城組合銀行의金融制度改善에對한希望事項中에貯蓄銀行條令發布件을包含하얏는바此問題에對하야는委員銀行中에도時期尚早를理由로反對意見을가지고잇는傾向도잇서總會의結果或은單只貯蓄銀行의取締規則適用程度에落着되지나안흘가하는바貯蓄銀行條令을發布하더래도直時實施치안코適當한時期까지延期하면關係가업겟다는意見도有力하다더라

京城勞銀昻騰

鮮銀調查八月中府內勞銀指數는明治四十三年七月賃銀을一〇〇으로하야算出하면平均二二〇四、五九로前月中에比하야〇、二八前年同月中에比하야五、五三인모다騰貴를示하엿다但前月中에比하야騰貴로示한一七三인前月中보다九의騰勝이오他는全部保合이더라

農倉庫問題로
財務局을非難

農業倉庫는財務局查定으로埋葬된것가튼貌樣인데農業倉庫의必要는이미充分히各方面으로論하얏슴과目前今年이豊作豫想으로米價가崩落되어서痛切히그必要를感하나財務局態度는一般으로甚히失望케한다더구나殖產局案도됨우躊躇하야金融組合의倉庫가全然失敗로終하엿는데다시倉庫를新設하는案을樹立하는等朝鮮의實情을無視한것이라고非難되다農業倉庫設備는暫時既設倉庫를利用하면充分하야新倉庫設立等全然無用이다또既設倉庫利用程度의豫算이면財務局도通過하얏슬것이나總督府는農業倉庫에對하야而考하리라고하나그如何에不拘하고穀物大會의一問題가될것이라고하는勢도잇더라

日銀國債擔貸 最低率適用擴張

(東京電) 日銀은去七月國債擔保貸付에對하야貸付金額의多少에依한最低率適用의範圍를英斷的擴張코저決하고本月末부터實行하기로되엇다더라

石炭界는大活躍
需要期를압헤둔
官製煉炭輸送開始

需要期切迫에伴하야燃料特히石炭은매우活氣가잇서朝鮮內撫順日本炭이모다各自商圈의擴張에對하야策動하고잇는바撫順炭은昨年에比하야貯炭量도적고朝鮮에向하야의移出은그다지힘을드리지안는模樣이다日本炭은積極的으로活動하겟고朝鮮內炭또安州落縣復舊 鳳山炭新驛開始에運搬이圓滑케되어咸興炭斷層에갓가우나二三年은採炭에大差가업고東亞鑛業에引込線을敷設하야後炭에備한는바市勢는一般으로高調요더구나輸移入炭은運賃關係等도잇서昨年에對하야每噸一圓高로唱한다그리고此의京城到着數量은元年度中(自十五年四月至元年三月)은十八萬八千九百三十五噸을算하얏(京城着九九、六九九噸龍山着八一、三三九噸往十里着七、八九七噸)스나本年度는더욱需要增加를볼모양이다이미寺洞鑛業所官製煉炭은九月一日부터輸送을開始하얏는데同所現在在庫는三千噸에達하야十一月外지에는五千噸을搬入할것이라고한다더욱昨年度月別搬入數量을示하면(單位噸)

四月	八、八三三	五月	一〇、一二三
六月	八、二五七	七月	八、五四四
八月	七、七五四	九月	九、〇五九
十月	一〇、〇六三	十一月	一三、一六六
十二月	一六、四二一	一月	一六、三八九
一月	三、四六〇	三月	五、一〇〇

撫順炭値上?

撫順炭은噸當塊二十五圓五十錢의唱인데例年에比하야大差는업스나需要는一昨年約四十萬噸이昨年約五十萬噸으로本年은約六十萬噸假量으로보아每年約二割의增加이다漸次石炭은需要期에入함으로周圍事情에推하야來月初에多少値上이될것갓더라

上旬貿易
繼續出超

輸出	六千二百卅七萬三千圓
輸入	五千二百七十萬二千圓
出超	九百六十七萬一千圓

朝鮮內 手形交換高

京城手形交換所調查=八月中朝鮮內手形交換高는十八萬一千七百五十七枚七千五百三十一萬六千餘圓으로前月中에比하야枚數로는一千四百六十九枚增加이나金額으로는三百七十六萬圓의減少를示하얏다八月中各手形交換所別은如左 (單位枚千圓△減)

	本月中	比前年同期
京城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今年米市勢 例年보다 二個月이나速해
收穫期에는不落

現在의米市勢는例年十一月頃의時勢로今年은二個月일즉이되엇다그原因은農林省에서今年의七月米價調節을潟澳한外에米의솔데업시甚多히남은것을안結果로昨年不況이든坂阪地方에도昨年의殘存米가잇는터임으로反撥은無論困難하나十一月時勢가二個月일즉이된것이면收穫期에至하야急落할바는업다고하더라 (某當業者談)

硫安需要激增
朝鮮產一千二百六十七噸

朝鮮內의硫安의需要는近年顯著히增加하야昨年中移入高는五十一萬一千餘『피클』로前年中에比하야倍以上即二十六萬二千『피클』이激增을示하얏다今年은最初幾分減少이라고豫想되어왓스나一月부터六月末까지의移入高는三十五萬三千餘『피클』에達하야前年同期間中三十七萬九千餘『피클』에比하야二萬六千餘『피클』의減少를示하엿스나十四年中一個年의移入高二十四萬九千餘『피클』에比하면半個年에이미十萬四千餘『피클』의超過이다그러나朝鮮內產은昨年二千二百噸京電六十噸에不過하고移出은近年皆無의狀態이나朝鮮水電의姉妹會社朝鮮窒素가製品을賣出하게이르면相當한移出을보게될러이다最近三個年間의需要最盛期인一月부터六月末까지의移入高는左와如하더라 (單位千피클)

	十四年	元年	二年
一月	一八	一七	一二
二月	四四	五二	四八
三月	三一	七八	一三
四月	一一	八六	六三
五月	一一	七一	二五
六月	四〇	七二	八九
計	一六八	三七九	三五三

『콜』最低率實現

(東京電) 東京콜市場은九日드되어翌日物六厘를實現한바이는大正十年來의最低率이라더라

新義州에 商議所設置
認可申請中

이미新義州有力者間에擬議되엿든同地에商業會議所設置問題에對하야는意見이一致되어發起人多田榮吉外四十四名(日本人三十一名、朝鮮人十三名)連署로昨年北道廳에申請을提出하얏는바當局에서는設置理由가當然하다고認하야一日附로外總督府에具陳하고目下設置可否에對하야銓議中인바設置理由의主要한것은平北道의經濟的膨漲이顯著하고特히鮮滿의咽喉를扼하야將來經濟的方面의發展을하려하면此의新設은焦眉의一題이라더라

不二興業 持米處分難

不二興業은仁川에二萬五千叺(一萬石)의國米保有를擁護하고잇든바中豫期에反하야米價가崩落한外目에處分難을激起하야仁川에서는到底히處分할수업슴으로八月初大阪에迴하엿든바大阪에서도買拂하기困難하다하야目下熟考中이라前後의手段으로서定期에賣繫하기로하엿다고云한다新米低와南方에서의今期米에若干의影響은不免할것이더라

朝米

仁川期米 十日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前場續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丁으로止場함과共히三十四圓六十四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의天氣恢復으로三十圓八十六錢인十四丁低로初付하얏을 뿐아니라二十四圓四十六錢인十八丁低로寄를始한後三十五錢外지低落하엿다가阪地六節九十錢으로反高함과相俟하야四十六錢으로返戾하엿스나結局阪地八十二錢의三番同事로止場함에伴하야七節三十錢으로四十二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十六丁이며阪仁의鞘는六百四十丁이더라

强材라고는 政府米買上뿐

昨今日本地方의雨後好晴은오히려買力에게는晴天을繼續한것보다더욱活氣를添하고又는一昨의反動은續落한것보다또한오히려低落의步調를健實히하엿다前途의大勢는旨하지아니하여도現下內閣의事情으로보아 누구나預測할바임으로更히收歛할것이無終의決斷日인二百二十日의天候如何와早冷又는政府의買上等材料밧게無하다그러나天氣에잇서서는반드시엇더한災害가잇스리라고信賴할수업고다만政府의買上에는一二百丁의變動을促進할것임으로오히려昂騰을企待하는것보다米價의低落을待하야策應하기만不如하다고云云

◇天氣槪況=高氣壓은日本東方洋上에七六五耗의것과黃海楊子江流域에七六一耗의것이잇스며朝鮮北部內陸에는七六〇耗의局部的의것이잇다低氣壓은九州에七五五耗山陰近海에七五四耗의것이東北東으로移動하고沖繩附近에는七五〇耗內外의것이滯留하여잇다天候는中國滿洲는大概晴朗朝鮮도東海岸方面에發大을見한外에는一般으로好晴이나日本內地는九州方面은降雨其他는晴曇의處가多하다

◇天氣豫想=中國의高氣壓은漸次東方으로移動함으로朝鮮의天候는明日도大槪晴을見하리라고

◇氣豫報=晴一時曇

後場下澁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限儀合

▲買方 ▲賣方 (中限・先限) [illegible]
合計 六八〇〇石
合計 二四七〇〇石

大阪期米

前場 寄 當中 一節 二節 三節 四節 五節 止 當中 六節 七節 八節 九節 十節 [illegible]
後場 寄 當中 一節 二節 三節 止 當中 四節 五節 六節 [illegible]

大阪氣配 三十〇[illegible]九十一錢

各地期米

	前場	後場
東京	[illegible]	[illegible]
兵庫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時勢

同	㊂㊄㊆玄米三等	二六、〇〇
無檢查米	四等	二五、五〇
等精白米		二五、二〇
在來正租		一〇、五〇
改良正租		八、〇〇

株式

京取前場 十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益騰

京取 一〇低 東新 一七高
鐘新 二〇高 安取 二〇高
大新 一三高

大新東新益騰 商內硬化好轉

今朝前場은亦是買氣旺烈하며前場長騰하는態로東新은百四十一圓六十錢寄後騰勢强烈하여三圓七十錢으로突高大引이고大新은七十九圓六十錢寄後亦是長騰하야八十圓九十錢으로大引하고鐘新은百二十一圓六十錢寄로二圓丁으로高引하고京取는二十一圓四十錢寄後七十錢으로徐騰하야大引하고安取는九圓丁寄와八十錢大引의寄引으로本이더라

前途好轉乃己

九月一日 新七十圓關門危殆를底價로反動高를新한大新은不過數日內로十圓以上의反戾를보혀一般散派로하야곰危境에陷케하는一方買氣가强烈하야新規買物이接踵하야生함으로人氣는硬化하얏는바今後는漸次好轉乃己는것이니即其理由는(一)休銀整理로新銀行이出現됨으로此에對한金融界整理進行好感(二)米價低廉으로因하야財界恢復의曙光이濃厚한것(三)近來稀有의大豊作으로因한前途好感等强材料헌임으로因하야好轉이宜하다고본다

押目買가得策

그런데大新鐘新其他는昨日前場外지無押으로進하든바後場은利喰押으로多少下押되엇스나今朝는다시東新이先驅로百四十三圓九十錢이엇고大新은八十圓九十錢이엇스며其他는堅健히騰勢를取하얏는바今後一般은押目에는

東新大上도

東新은今朝大阪最高値十二圓三十錢이엇스며大引은一圓九十錢임에도不拘하고當所는東新渠拜者의衆動과金融東田其他의新規買로最高低百四十三圓七十錢으로大引하얏는데阪當은實로一圓八十錢의大上鞘로此도當實主義하는바當所、新에新한人氣는激烈하야上鞘에도關係가업겟다고하는態度이더라

前場諸株步調

株名	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京取	[illegible]

後場又復暴落

京取 三〇高 大新 一六〇高
鐘新 九〇高 東新 一九〇高

諸株乘勝長驅 人氣極度硬化

後場은又復歇撥하야東新은百四十五圓六十錢大引이고寄後堅保하다가五圓四十錢高寄後亦是波瀾中一高하고鐘新은百二十二圓五十錢으로高引一低하다가二圓九十錢大引이고大新은八十二步一本이오京取는二十一圓九十錢高錢寄後二圓丁步뿐이고大引不成이더라

後場諸株步調

株名	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長期合計 累計 [illegible]
▲短期合計 一六一 累計 一九四〇〇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大引	算定	日步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以上二日分日步

大阪短期步調

株名	步調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鐘新	[illegible]
▲前場久原	[illegible]
▲前場東新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鐘新	[illegible]
▲後場久原	[illegible]
▲後場東新	[illegible]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貸止準備高	[illegible]

來年度新規計劃과 … 當局과折衝을거듭한다하야이바 … 에도可及的一時的小規模의計劃 … 될것이라고한다그러나此는湯淺 …

海外經濟

[illegible]

トツカピン (도쓰가빈)

幸福感 言外의强味 健康 愉快 元氣復活 性能明晰 頭腦旺盛 精力

陰萎 夢精・早漏 性慾・遺精 精力減退 老衰 ヒステリー 神經衰弱 安眠不能

爲先 一錠을試하면 凡百의疑問 모다消滅한다

斷乎하게 貴下의피끈한 것을 粉碎합니다

戶塚醫學博士推奬

藥價 三十錠 三圓 五十五錠 五圓 (携帶容器付) 百廿五錠 拾圓 (携帶容器付) 三百十粒 廿圓 (携帶容器付)
(量用) 一回一錠 一日三回

○全國有名藥店에有함 品切의時는發賣元에 前金注文―送料不要 代金引換―送料實費 密送함

東京市銀座新肴町八番地 電話京橋長七三四五六番 振替東京七二二一番
丁子堂藥房
大阪西區新町通一丁目二番地 電話新町長四五七番 振替大阪一〇六番

早大創立四十五年記念・新學年開講

政治經濟講義

內容見本 申込次第 無代進呈

自宅に於て、一流學者の大學に於ける講義が平易に、明瞭に、安價に聽ける!

◇普選の日は來て、現代全社會人が政治的經濟的社會的に覺醒すべき秋は來た!公人の常識として私人の教養として苟くも全現代人の絕對的必讀を要する!

◇漫文本位の雜誌や、學課目相互間に何等の系統なき單行書籍類と異り、大學の講座目に基いて斯學に關する一切の綜合的學理を組織的系統的に說く。

◇附錄册子「社會及思潮」を添付して活ける社會の知識を與へ、また早大入學その他の十大特典を提供する。

法律講義・文學講義・中學講義・商業講義・女學講義 (各講義共見本申込次第進呈)

毎月發行■一ケ年半卒業
學費月一圓廿錢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電話牛込三四五三・四六

御園白粉

月清하고 眞顏이 美麗함

眞히色白에 艶佳함心神 이을마던지 美麗함純無 鉛의白粉

自宅職業

特許品加工에 近男女에 自宅에서 每月永久 收入多大 希望者는 ◎特約店募集 詳細說明見本呈 大阪九條小通七 友榮商會 電話西二一七七

◆◆◆◆

本紙(六面)購讀料 壹個月金一圓

朝鮮日報京城販賣所 京城府堅志洞一百十一番地 電話光化門一四七四番

◆◆◆◆